FAITH & LIFE

시아가사

9+10 SEP+0CT 2021 VO.14



특집 2030 세대

사람사이 김유준 은진교회 담임목사 청년, 시론 그리스도인 2030 세대, 작은 일부터 소중히 하자 문화로 세상보기 그 스승에 그 제자, MZ 세대에게





Contents

SEPTEMBER + OCTORBER · 2021

aren		FAITH & A G F Z F A F 90.00
		20 20 20 10 11

2021. 9+10월호 | 제14호(통권 229호)

〈신앙과 삶〉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시선	
MZ 세대의 명암, 공정성과 이기주의 ㅣ손봉호	02
편집장의 말	
2030 세대에 다가가는 복음적 지혜 ㅣ 신국원	04

특집 2030 세대

2030 세대의 신앙과 삶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 정재영	06
2030 세대에게 교회란 어떤 의미일까? । 이상갑	08
2030 세대, 함께 가야할 우리의 미래 + 김성희	10
2030 세대를 위한 기독교세계관 । 유경상	12
캠퍼스 2030 세대의 부흥을 다시 소망하며 ㅣ 김용태	14
거칠고 불안한 일상의 청년과 그걸 지켜보는 교회 ㅣ김현아	16
공감과 이해, 청년 세대에게 다가가는 열쇠 ㅣ 정명현	18

사람사이	
김유준 은진교회 담임목사	20
섬김의 자리에서	
때를 따라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ㅣ 김혜정	24





청년, 삶을 고민하다

청년 시론

그리스도인 2030 세대, 작은 일부터 소중히 하자 I 강경만 26 한 2030 세대의 캠퍼스 삶, 베리타스포럼을 섬기며 I 최요한 28 청년, 일터 이야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그 고군분투(孤軍奮鬪)의 현장 I 고영철 30 어떤 일을 해야 할까? I 김정수 32

문화로 세상 보기

영화를 보다	
그 스승에 그 제자, MZ 세대에게 I 추태화	34
미술을 보다	
2030 세대의 미술을 말하다 । 서성록	36
책을 보다	
혐오와 차별의 시대의 대안 : 배제와 포용 । 심재형	38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야기 ㅣ 김희진	40
세상과 대화하는 기독교를 제안하다 정재경	42

교회 路

 청년 중심 교회, '움직이는교회' 소개
 44

 교회로 살면, 교회는 개척된다 I 김상인
 45

 소감문: 남은자 I 이세준
 45

온전한 지성

청년 독서 나눔 콘서트 | 석종준 46 과학, 기독교 세계관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김병재 48

소식

독자한마디	50
사무국 소식	51
관련기관 소식	52
재정보고/후원자보고	53

발행일 2021.9.27 발행인 손봉호 편집장 신국원 편집실무 석종준 발행처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주소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5, 수서타워 910호 전화번호 02.754.8004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ISSN 2671-8731 카카오톡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메일 info@worldview.or.kr 디자인·제작 디자인집 02.521.1474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 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 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 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 의 공동체입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MZ 세대의 명암, 공정성과 이기주의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



높은 평가를 받는 인물의 한계를 지적할 때 가끔 "그도 역시 시대의 아들(혹은 딸)이었다"라고 한다. 아무리 뛰어나도 살았던 시대의 한계를 초월하기는 쉽지 않다. 요즘은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하기 때문인지 '시대'가 '세대'로 바뀌었다. 같은 땅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꼰대 세대', '386 세대', 'MZ 세대'(2030 세대)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

특히 MZ 세대는 그 전 세대가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을 내뱉을 뿐 아니라 아예 다른 문법을 쓰는 것 같다. 우리 역사상 젊은 세대와 그 전 세대가 이렇게 달라 본 적이 없다. 미래에 큰 변화가 일어날 조짐이다. 인간 만사가 다 그렇듯 물론 MZ 세대에도 긍정적인면과 부정적인면이 공존한다.

MZ 세대의 긍정적인 면은 우선 한국 사회의 망국적인 이념 갈등에 비교적 초연하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위 협도 실감나게 경험하지 않았고 독재정권의 탄압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보수나 진보가 되어야 할 상황적 이유가 없다. 꼰대 보수가 걱정했던 전교조 의 '세뇌'도 별 성공을 거둔 것 같지 않다. 거기다가 정 보통신 기술에 익숙하고 언론자유의 혜택을 받아 전 세계를 쉽게 접할 수 있어서인지 한국의 시대착오적 인 보수와 위선적인 진보의 편향성을 훤하게 보는 것 같다. 정치적 성향에서 MZ 세대가 '꼰대 세대'와 비슷 하다는 사실에 보수파들이 좋아할 이유는 전혀 없다. 만약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잡고 구태의연하게 행동하 면 즉시 화살을 맞을 것이다.

특히 반가운 것은 MZ 세대가 공정성 혹은 정의에 민 감하다는 사실이다. 개인의 행·불행이 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오늘날에 공정성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필수적인 기본이며, 현대사회 윤리의핵심이다. 정직, 친절, 자선 등 다른 면에서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공정하지 못하면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이다. 그런 점에서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공정성에 민감하다는 사실은 그 무엇보다 긍정적인 현상이고 좋은 발전을 위한 필수 자원이다.

MZ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의 상당한 부분은 바로 그들의 이런 장점들을 교회가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 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우선 시급한 것은 교회가 이 념의 감염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근 미국과 한국의 복 음주의자들 일부가 극보수 정치이념에 지나치게 휩쓸 려서 복음 전도와 기독교 세계관 확산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 그에 대한 진보적인 반작용도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 교회가 이념의 우상을 버리고 사회통합과 평화에 앞장서야 세상의 소금과 빛도될 수 있고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 젊은이들도 불러들일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는 공정성에서 교회는 MZ 세대를 능가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의 정의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하거나 성취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아니다. 롤즈(John Rawls)가 주장하는 '차등의 원칙'에 충실하여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즉, 성경과 교회의 역사가 강조해 온고아, 과부, 나그네 등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돌보는 사랑을 좀 더 열심히 그리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려면 개인의 물질적 축복과 교회 성장 같은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목표를 버리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십자가의 도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물론 MZ 세대에도 약점들이 없지 않다. 서양 젊은이들 비슷하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라 한다. 물론 공정성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그런 성향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계에서 기부지수가 1위인 인도 네시아나 9위인 미얀마를 이기적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부지수가 128위로 매우 이기적인 일본이 그들 나라보다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기부지수 2위 호주나 3위 뉴질랜드는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이기적이 아니고 동시에 공정하다. MZ 세대 일부가 가상화폐로 뗴돈을 벌려는 것은 이기적일 뿐 아니라 피땀흘려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공정하지도 못하다.

물론 MZ 세대가 이기적이 된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30대 상당수는 IMF 사태의 피해자들이고 20대 는 높은 청년 실업률의 당사자들이다. 당장 일터를 찾 지 못해 고민하는 상황에서 이타적이 되기는 쉽지 않 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기성세대가 책임을 져야 하고 미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꼰대 세대'도 할 말이 있다. 지금의 실업률이 3.5% 정도지만 우리는 실업률이 35%였을 때도 살아남았고 굶으면서도 죽도록 일했다. 구걸하다시피 해서 받은 장학금으로 유학해서 선진 지식을 배워오고, 서독으로, 아라비아로 가서 노예처럼 일해서 돈을 벌었다. 그 덕으로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되었고 젊은이들이 투정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4050 세대'도 할 말이 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인권 유린을 밥 먹듯이 하던 독재세력에 맞서 치열하게 싸워야 했다. 결코 쉽지 않았다. 물론 스스로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해하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였던 나라를 선진국으로, 원조받던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로 바꾼 기성세대의 공로는 인정해 주는 곳이 공정할 것이다.

어쨌든 한국 교회는 MZ 세대의 긍정적인 특징을 수용하고 장려하는 반면, 부정적인 특징을 설득력 있게 비판하고 고쳐줄 수 있어야 건강한 존속과 발전이 가능하다. MZ 세대는 그 전 세대와 한국 교회에게 중요한자극과 채찍이 될 수 있다. FRITH & LIFE

글쓴이 손봉호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 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했다. 1996년 도산인상, 1998년 국민훈장 모란장, 2018년 서울대 사회봉사상 수상.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기아대책 이사장으로도 섬 기고 있다.

2030 세대에 다가가는 복음적 지혜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우리는 역동적인 변화의 한 세기를 겪었습니다. 특히 지난 40년은 산업화에서 민주화, 그리고 세계화로 나가는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서구가 400년에 통과한 것을 압축해서 해낸 셈입니다. 자연히 세대 차와 갈등이 극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스도인은 그갈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야 선교적 소명을 다할수 있습니다.

〈시선〉은 그 길을 제시합니다. MZ 세대와 꼰대 세대의 사정을 살피고 장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사회의 건강한 존속과 발전의 길을 찾을 방안을 제안합니다.

〈특집〉의 첫 필자는 종교사회학자인 정재영 교수님입니다. 2030 세대를 교육의 대상이나 봉사자로만여기지 말고 주체적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격려할 것을 주문합니다. 청년 사역 전문가인 산본교회 이상갑목사님은 교회가 외로움과 괴로움을 겪는 젊은이들이 모여들 수 있는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학복협 김성희 소장님은 2030 세대는 출애굽을 경험한 기성세대와 달리 '요단강'을 건너는 새로운 신앙의 여정에 있음을 이해해야 할 필요를 말합니다. CTC 유경상 대표님은 새로운 세대의 기독교 세계관교육은 그들의 필요를 경청하고, 실천적 모범을 보이 며 그들을 당당한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주는 포용이 요청된다고 했습니다.

CCC 김용태 간사님은 '코로나 19'로 캠퍼스 생활과 신앙 훈련의 기회를 잃은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간증을 나눕니다. 정명현 형제는 취업과 주거난 같은 현실의 어려움이 청년들을 실용주의에 기울게 만드는 이유라고 지적합니다. 반기독교적학내 정서 속에 씨름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같이 기도해주며 다가갈 것을 제안합니다. 김현아 기윤실 사무국장님은 "교회의 미래를 위해 청년을 논하지 말고 그들의 오늘을 위해 교회를 바꿀 것"을 요청합니다. 가슴 깊이 공감되는 말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연세차세대연구소 김유준 목사님은 2030 세대가 '미전도 종족'에 가깝다고 하시네요. 청년 성도의 급격한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선 사회적 박탈감과 불공정에 불만을 가진 이들을 품어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회나 선교 단체는 물론이고 동아리 활동조차 힘든 청년들을 고답적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전문화된 사역의 필요를 인식하길 당부합니다. 〈섬김의 자리〉의 CUP 김혜정 대표님은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간사로 출발하여 다양한 직책을 거친 분입니다. 20년 가까이 출판 사역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동참해온 경험을 나눕니다.

〈청년 시론〉에서 강경만 형제는 교회 청년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며, 온라인 큐티모임을 통해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을 바꾸어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최요한 형제는 베리타스 포럼을 섬기며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의 경험을 나눕니다. 게임 시나리오 작가 고영철 형제는 〈청년 일터 이야기〉에서 주일 성수와 직장 속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경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합니다. 백석예대 교목실조교 김정수 형제는 학생들을 섬기며 유튜브 채널을통해 노래와 삶을 나누는 가운데 씨름하는 경험을 나눕니다.

〈영화를 말하다〉의 이레문화연구소 추태화 소장님은 〈자산어보〉가 그린 흑산도에 유배된 정약전과 '상처 받은' 청년 창배가 보여준 사제지도를 통해 MZ 세대 와 나눌 메시지를 밝혀줍니다. 〈미술을 말하다〉의 서 성록 교수님은 '좀비 형식주의, 'NFT', '크립토 아트' 같이 MZ 세대가 주도하는 변화들 속에 기독교 작가 들이 지향해야 할 일은 문화에 '새로운 생명과 생동 감'을 불어넣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책을 말하다〉에서 김희진 자매는 탁장한의 〈누가 빈 곤의 도시를 만드는가〉에서 말하는 쪽방촌의 이야기를 통해 이웃사랑과 사회복지를 새롭게 생각하는 눈을 열게 해주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심재형 형제는 볼프의 〈배제와 포용〉의 내용을 반추하며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겪을 수밖에 없는 긴장을 어떻게 십자가 정신으로 넘어설 것인지를 새깁니다. 정재경 형제는 김기현 목사가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에서 인문 고전 15권과 씨름하며 던진 질문과 답을 소개합니다.

〈교회로〉에서는 〈움직이는 교회〉를 소개합니다. 김

상인 목사님과 이세준 선교사님이 "교회로 살면, 교회는 개척된다"라는 모토로 2018년 홍대에서 시작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청년들이 청년들에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형태가 특징입니다. 〈온전한 지성〉엔 두 가지 활동 보고가 올려졌습니다. 석종준 선교사님이 서울대, 성균관대, 카이스트 대학원생 30여 명이 함께했던 〈배제와 포용〉 독회 내용을 소개합니다.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김병재 선생님은 동역회 교수들과기독교학교 교사들이 과학 교과를 기독교적으로 가르치는 방안을 찾는 협동 작업의 출발을 보고합니다.

참 어려운 때이지만 이번 추석 명절에도 동역회 모든 지체와 후원자님들, 기쁨 가득하셨기를 기도했습니다. 필진과 편집진의 수고에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칭찬해줄 것을 믿습니다. FRITH & LIFE



기 글쓴이 신국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자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장이다. 총 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총신대 명예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 대학원 초범교수, 삼일교회 현동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2030 세대의 신앙과 삶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교수)



30대의 이준석 후보가 제1야당의 대표로 선출되어 우리 사회에서 2030 세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장유유서(長幼有序)와 연공서열(年功序列)이 아직도 엄존하는 현실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기에 이 일은 '2030 세대의 반란'으로 여겨질 정도이다. 이후에 '국민의 힘'에는 2030 세대의 입당 행렬이 줄을 이었고, 여당은 한순간에 '꼰대 정당'의 이미지를 뒤집어쓰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40대 이상의 특히 남성들은 졸지에 꼰대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2030 세대에 큰 관심이 없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말로는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서 있지 않고 예산 배정도 충분하지 않다. 다음 세대는 교회 정책에서 언제나 다음 순위로 밀리고 있다.

한국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줄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많은 염려가 나왔고, 최근에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청년 이하 인구의 감소

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게다가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면서도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들도 계속 늘어나면서 교회 안에서 이들의 빈 자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 교회는 빠르게 노쇠화가 진행될 것이고 선교 역량 약화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국 교회의 존속 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필자가 맡고 있는 '21세기교회연구소'와 다른 기관들이 공동으로 그리스도인 청년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모태신앙 53%를 포함해서 청년기 이전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비율이 87%에 이른다. 이러한 결과는 어렸을 때부터의 신앙이 잘 정착하여 가정 안에서 기독교 신앙이 전수되고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신자가 유입되지 않고 있어서 젊은 층에서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가족 종교화 경향이 심화됨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의 확 장성이 매우 부족하며 자칫 끼리끼리의 종교로 전락 할 우려도 있다.

게다가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면 이 사회에서는 성 공할 수 없다"라는 데에 대해 40.4%가 '동의'했다. 20~30대의 젊은 그리스도인 청년들 10명 가운데 4 명이나 성경대로 사는 것이 현실에서 어렵다고 인식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현실의 삶 과 성경의 가르침 사이에서 괴리를 느끼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 은 내 주위에는 별로 없다"라는 데에 더 많은 61.7% 가 동의하여.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매우 비현실 적이며 좋은 신앙의 본이나 멘토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제 수준이 낮은 경우 이에 대하여 더 부 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절반 정도인 53.3%만 10년 후에도 "기독교 신앙도 유지하고 교회 에도 잘 나갈 것 같다"라고 응답했고, 39.9%는 "기독 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에는 잘 나가지 않을 것 같 다"라고 응답하여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매 우 어둡게 하고 있다.

이제 교회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에 민감해져야 한다. 기성세대의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기보다 그들 스스로의 방식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라는 명목으로 청년들을 소비하기를 멈추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동역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을 목회의 대상이나 교육의 대상으로 여기기보다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세워주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교회에서는 청년들의 신앙에 관심이 있지만 신앙은 삶의 조건과 무관하게 형성될 수 없다. 척박한 생활 환경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창업이나 일자리 사업과 협동조합 그리고 공유 주택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하지 말아야한다. 협동조합의 출발은 기독교 사상과 전통에서 비롯되었다. 일부 교회와 기독교 단체도 이미 이런 일에 참여하고 있다.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다. 청년들의 신앙이 바로 서고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

FRITH & LIFE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교수이자 21세기교회연구소 소장이다. 연세대에서 사회학을 전공(Ph.D)하고,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전문연구원을 지냈으며, 저서로는 〈현대 한국사회와 기독교〉, 〈그들은 왜가톨릭교회로 갔을까〉, 〈시민사회 속의 기독교회〉, 〈그들의 자살 그리고우리〉, 〈함께 살아가는 마을과 교회〉 등이 있다.

2030 세대에게 교회란 어떤 의미일까?

이상갑 (산본교회 위임목사, 청년사역연구소 대표)



2030 세대는 외로운 세대입니다. 태어나고 자라면서 디지털에 익숙한 디지털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스마트폰은 신체의 일부와 같습니다. 디지털 세대는 혼자 있거나 외로울 때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합니다. 배고 플 때도 전화로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짜장면 한 그릇도 앱으로 주문해서 먹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느슨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런 2030 세대에게 외로움은 그들만의힘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외로움이 무슨 힘이냐고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외로움은 창조의 힘입니다. 외로움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담뿐만 아니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외로움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 속에서 상호 책임지고 상호의 존하는 지체로서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2030 세대의 외로움을 더 짙게 하고 있는 공동체는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 교회가 2030 세대의 외로움을 잘이해한다면 그들을 위한 공유, 공감, 소통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 자신의 몸집만 불리는 이기적인집단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2030 세대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로 서 있으면서, 그와 동시에 2030 세대와 유기적인 지체로 연결되는 사역을 고민하며 풀어간다면, 2030 세대는 교회를 공유, 공감, 소통의 공동체로 새롭게 인식하게될 것입니다.

2030 세대는 괴로운 세대입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온 몸으로 경험하는 세대입니다. 기회의 사다 리가 해체된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그들 가운 데 대부분은 부모님의 줄과 끈이 없이 세상에 홀로 선 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세대입 니다. 그래서 이성 교제를 포기합니다. 아무리 노력해 도 정규직 진입이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어느 순 간부터 취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도미노 현상처럼 결혼을 포기합니다. 그러니 출산도 포기하는 것입니 다. 이러한 고통은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괴로운 것은 꿈과 미래조차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죽음의 원인 1위는 슬프게도 자살입니다.

2030 세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더열심히 '알바'를 합니다. 더열심히 스펙을 준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면접과 시험에서 낙방을 경험하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경험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좌절감을 맛보는 세대입니다. 사실 그들은 기성 세대보다 더 좋은 스펙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성세대가 누렸던 기회의 문이 닫혀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졌고, 스스로 번 돈으로 집을 마련하고 결혼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2030 세대는 죽자고 일하고 공부하지만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점점 정규직의 진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산과 부동산 투자에 '올인'을 합니다. 정상적인 노동으로 집을 구입하기도 힘들다는 것을 깨달은 2030 세대는 주식 투자에 몰입하고 가상화폐에 몰두합니다. 그들의 투자는 투기가 되기도 하고 그들의투기는 그들을 시시때때로 망가지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괴로운 세대입니다.

이들의 괴로움을 교회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단지이 모든 문제에 대해 바른 말만 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교회를 꼰대 집단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또 청년들의 노력이 부족하거나 투지가 부족하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교회를 외계인 취급할 것입니다. 전혀 2030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2030 세대에게 어떤 의미로 자리해야 할까요? 교회는 여러 삶의 문제로 고통스러운 2030 세대에게 아둘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를 유리

방황할 때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 짙은 외로움과 괴로움에 찌든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든 곳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사백명 가량이었더라"(사무엘상 22:2) 그들은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새로운 대안을준비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2030 세대에게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준비하며, 미래를 열어가도록 돕는 공존, 공생의 공동체가된다면 어떨까요?

진리를 떠난 것은 2030 세대가 아닙니다. 어쩌면 기성세대가 그들을 밀어낸 것인지도 모릅니다. 기성세대의 욕구, 욕망, 욕심이 2030 세대에게 투자란 이름으로 투기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나서게 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 교회는 2030 세대들 가운데 환난 당한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모여들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공유, 공감, 소통하면서 동시에 세상과 공존하고 공생하는 영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곳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어갈 미래가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사회적 불평들을 해체하며 기회의 사다리를 누구나 올라갈 수 있도록 복원하는 주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하고 지원하고 응원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FRITH 8 LIFE

글쓴이 이상갑



한국 지역교회의 대표적 청년 사역 전문가로서 현재 산본교회(예장 통합) 위임목사이자 청년사역연구소 대표이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ACTS),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풀러신학대학원 박사과정(D.Min)에서 공부 했다. 무학교회 청년부 목사, 학복협(학원복음화협의회) 교회 실행 위원 장 및 협동 총무를 역임했다. 저서로 〈설래임〉(2015), 〈바이블 정신〉(2016), 〈결국, 말씀이다〉(2018년) 등이 있다.

2030 세대, 함께 가야할 우리의 미래

김성희 (학원복음화협의회 캠퍼스청년연구소 소장)



출애굽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 안에도 세대 차이가 있었다. 1세대였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 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새로운 세대'로 번역하였다. 한 세대가 지나가면 다음 세대가 일어난다. 그런데 성경에서 '다음 세대'라 하지 않고 '다른 세대', '새로운 세대'라 기록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러 면에서 이전 세대와는 너무도 다른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 것이다.

출애굽이후세대, 새로운세대와 같이 2030세대는새로운세대, 신인류다. 2030세대는 'MZ세대'에 속한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밀레니얼(Millennial)세대'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Z세대'를 규정하는 말이다. 이들은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세대'이며 '공정'과 '작은 행복'을 중요한 가치로 추구한다. 그래서 결혼해서 배우자와 함께 초라하게 사는 것보다 등력있는 자기 자신이 홀로 살면서라도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N포 세대'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노력해도 이루지 못할 것은 포기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필자가 사역하는 학복협(학원복음화협의회) 캠퍼스 청년연구소에서 실시한 '대학생 의식조사'(2020)에 나타난 결과에서도 새로운 세대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의 심화이다. 이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마주했다. 대학등록금 반환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90%).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66%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는데, 경제수준 하층(50.8%)이 생활수준 상층(72.6%)보다 상당히 낮았다. 이만큼 젊은 세대는 이전세대와 비교하면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성장했지만, 현실속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하나는 2030 세대는 정치적인 성향도 이전 세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최근 '이대남 이슈'이다. 20대 남성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극단 성향을 보이는 현상 을 말한다.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20대 남성을 포함한 청년세대, 특별히 대학생은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적 성향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2017년 학복협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에 대한 기대치는 66%에 달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청년 정책에 대하여 32.5%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사회적 이슈와 현정부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주로 좌우하는 것은 정치성향과 성별이었다. 현정부의 정책에 대해 정치성향에서 진보는 '다소' 부정적으로, 중도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수는 '매우 많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여성은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2030 세대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들이 우리의 미래임을 인식하고 사랑해야 한다. 사무엘 에스코바(Samuel Escobar)는 그의 책 〈벽을 넘어 열방으로〉(IVP, 2004)에서 기독교 국가의 탈기독교 현상과현대에 일어난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에 대해서 주의 깊게 다루고 있다. 특별히 저자는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해 간명하면서도 매우 통찰력 있게 다루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인간 신체에 대한 예찬', '물질 숭배', '(소박한) 쾌락주의', '소비주의' 등이다. 그의 결론적인 통찰은 이 시대의 청년대학생 사역을 위해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제시한다. "포스트모던 문화 속의 젊은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는 새로운 세대를 품을 수 없다"(〈벽을 넘어 열방으로〉, p. 83).

교회가 2030 세대를 품는 사례 중의 하나는 성복중앙 교회(길성운 목사)이다. 즉 성복중앙교회의 '새벽만나'와 '청년희년 프로젝트'는 현실을 공감하고 함께하는 사랑과 진심을 잘 보여준다. '새벽만나'는 청년들을 위한 사랑의 아침식사를 섬기는 사역이다. 2013년에 시작하여 '코로나 19' 직전에는 매일 100여 명의 대학생, 취준생, 직장인이 찾았다. '청년희년 프로젝트'는 2018년부터 시작한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 섬김사역

이다. 이렇게 청년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지며 응원하는 멋진 사례는 청년들이 미래의 주인공으로 존중받는 자양분이 된다.

청년 사역과 캠퍼스 선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2030 세대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2030 세대는 우리의 미래 다. 그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호수 아와 갈렙 세대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너무 다른 세대 였다. 그들은 광야의 영웅 이야기와 고난의 행군 이야 기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였다. 출애굽한 부모세 대가 경험한 홍해를 건너는 방법과 다음 세대가 경험 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달랐다. 또한, 광야에서 만 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았던 부모세대의 삶의 양식 과가나안에 들어와서 추수하며 살아가던 다음 세대의 삶의 양식이 달랐다.

2030 세대가 비록 앞선 세대와 공유한 문화와 환경이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세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사는 'J세대'가 되길 원한다. 한국 교회가 2030 세대를 향한 넉넉한 사랑의 품을 가져 그들을 향한 이해와 공감을 위한 도전이 계속되길 기도한다. FRITH & LIFE





2019년부터 학원복음화협의회 캠퍼스청년연구소 소장으로 사역 중이다. 30년째 한국의 '캠퍼스/청년 사역' 영역에서 선교전략가와 훈련전문가로 살고 있으며, ESF 대표를 역임하였다. 신반포교회(홍문수 목사)에서 사랑부를 섬기고 있다. 가족으로는 아내 이인숙과 세 자녀(한나, 한울, 한 별)가 있다.

2030 세대를 위한 기독교세계관

유경상 (CTC 대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



청소년과 청년 시기에 무엇을 경험하느냐는 인생 전 체의 세계관과 삶의 태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 지 금의 2030 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대학입시와 취업 을 위한 무한 경쟁에 익숙해져 있다. 그렇게 치열 한 경쟁 속에 살아왔음에도, '영끌'과 '빚투'로 표현되 는 그들의 현실은 한마디로 각박하다. 심지어 '코로나 19' 팬데믹과 경기 침체로 인해 청년 고독사가 늘어 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2030 세대가 생존에 대한 불안과 고립감과 상대적 박탈 감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 러한 사태가 지속되면서 2030 세대의 사회적 불신 과 반감은 커져 가고 있으며, 그들은 각자도생의 길 을 걷는 중이다. 실례로 비혼과 비출산이 늘어나고 있 고, 공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기계발에 관 한 관심이 커지고, 자신을 위로하고 행복해질 수 있 는 것들에 집중하는 현상은 각자도생을 위한 그들 의 몸부림이다.

이러한 경험이 형성하는 2030 세대의 대표적인 세계

관은 개인주의라 할 수 있다. 개인주의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의 모든 제도에 있어서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이다. 개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실재는 나자신이다. 근대 철학자들은 영혼의 개념을 대체할 '자아'(self)라는 용어를 창안했다. 자아로서의 개인은 자아의 만족과 성취를 위해서 행동한다. 자기 자신이 바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권위의 주체이며, 자신의 목적은 타인과 집단의 목적보다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개인주의는 자기 향유와 자기계발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며, 자신이 하는 일과 그 성과가 자신의 정체성과 비전을 형성해 간다. 개인주의가 2030 세대만의 세계관은 아니지만, 그 세계관이 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2030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그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먼저 2030 세대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 도전

받을 점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들 에게 받는 가장 큰 도전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 아가는' 그들의 당당함이다. 그들은 환경의 제약에 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한 신념과 가치대로 살아 가려고 힘쓴다. 그들은 솔직하고 당당하게 자기 뜻 을 표현할 줄 알며, 언행일치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 한다. 그들은 "라떼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꼰대를 거 부하고,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현재의 삶을 누리는 동 시에 충실히 살아가려고 하고. 사회적 불평등이나 환 경 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이를 해결하는 일에 앞장선 다. 이런 점에서 이론만 있고 실천은 부족한 기독교 세계관은 2030 세대에게 거의 영향을 주기 힘들다. 한편 2030 세대의 세계관 근저에 자리 잡은 '희망 과 두려움'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때, 비 판과 정죄가 아닌 긍휼과 공감으로 그들에게 다가 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만난 청소년과 청년들 의 열 명 중 아홉은 '미래에 관한 불확실'을 고민 1 순위로 두고 있다. 그 이유는 청소년 시기뿐 아니 라 청년 시기에도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꿈과 비 전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와 여유가 없기 때 문이라고 말한다. 무한 경쟁의 시스템 속에서 최선 을 다해 살아 왔지만, 그들의 미래는 점점 불투명해지 며, 삶은 더욱 각박해져만 간다.

설상가상으로 2030 세대를 꼰대의 눈으로 바라보는 일부 기성세대로 인해 사회적 불신과 반감은 더 커진다. 미래에 관한 불안과 기성세대를 향한 불신의 결과, 그들에게는 자기 자신 외에는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자아의 만족을 위해 살아갈수록 그것이 결코 만족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고, 자아의 성취를 추구할수록 자신의 기준보다 다른 사람의 기준과 평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고통과 절망을 피하려 할수록, 점점 고립된 섬에 홀로 남게 되

는 자신을 보게 된다. 이러한 개인주의의 한계를 경험할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은 2030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각자의 정체성과 비전을 발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2030 세대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 가도록 돕는 실천방안을 간략히 제안하고자 한다. 첫 째, 듣는 것이다.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계 를 회복해야 하고, 그 관계의 회복은 소통에서 출발한 다. 그 소통의 시작이 바로 경청이다. 그러므로 2030 세대의 생각과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경청 의 시간이 필요하다. 둘째, 모범이 되는 것이다. 말로 만 전하고 실천하지 않는 기독교 세계관은 꼰대의 세 계관이 될 수밖에 없다. 기성세대가 먼저 기독교 세계 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위해 힘쓸 때. 적어도 그진 정성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 동체 안에서 그들의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 다. 동등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뜻이 당당하 게 공동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30 세대의 솔직함과 당당함과 진정성이 기독교 세계관 과 만나, 공생과 공존을 지향하는 소망의 공동체가 곳 곳에서 생겨나길 기대한다. FRITH & LIFE





CTC(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 대표이다.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인생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가다. 경북대학교 철학과(B.A), 캐나다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백석대학교 박사과정(Ph.D, 기독교철학)에서 공부했다. 2007년 CTC를 설립하였으며,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수많은 지역교회에서 기독교세계관을 강의하고 있다.

캠퍼스 2030 세대의 부흥을 다시 소망하며

김용태 (서강대 CCC 전임간사)



2020년, 처음 CCC 간사로 발령받았을 때, 교회와 선교 단체는 전례 없었던 위기에 놓여있었다. 한창 학생들로 붐벼야 할 캠퍼스는 텅 비어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온라인 사역도 생소해, 신입생 사역도 시도해보지 못했다. 당시 제 심정을 잘 담아낸 한 단어가 있다. 영어 'Apocalyptic'은 '종말적인', '종말을 알리는'의미의 형용사인데, 영어권에서는 종종 희망이 없을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그 정도로 나는 사역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많이 잃은 상태였다.

'코로나 19'의 가장 큰 피해자는 대학생들인 것 같다. 비대면 강의로 캠퍼스 생활이 어려워지자, 많은 학생 은 외로움과 우울감으로 힘겨워한다. 그러나 동시에 대학생들의 삶은 더 바빠져 보이기도 한다. 다수가 비록 비대면으로라도 학과 동아리, 학회 활동, 인턴 활동 등으로 스펙 쌓기, 또 아르바이트, 주식 거래 등으로 재정을 모으는데 열심을 내는 문화가 지난 1년 사이에 대세로 형성되었다. 현실적으로 매우 좁아진 취 업의 문턱 때문에 거의 모든 대학생이 온라인 수업으로 확보된 시간을 전부 스펙을 쌓는 데 보내기에,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면서 캠퍼스 동아리 같은 공동체를 섬기는 학생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남들처럼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바이러스보다 빠르게 퍼져있는 것이다.

선교 단체들도 '코로나 19'의 여파로부터 당연히 자유롭지 못하다. 동역자를 만나지도 교제하지도 못하는 기독교 동아리의 경우, 좋은 공급원이 더는 없다는 인식 때문에 그런지 선교 단체에 정착하는 학생들은 확실히 줄어들었다. 대면으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야기한 문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청년들을 직접 섬기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경험하게 해 주도록 맞추어진 선교 단체의 다양한 전략과 프로그램들의 실현이 녹록지 않기에, 캠퍼스 전도자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심지어의문을 품게 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다행히 최근 우연히 요한계시록 강해를 접

하고 사뭇 다른 관점으로 현 상황을 보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Apocalyptic'('종말적인')은 사실 헬라어 'Apocalypsis'에 어원을 두고 있는데, 이를 문자 그대로 '드러내다' 혹은 비밀 따위를 '밝히다', 명사로는 '계시'로 해석된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이 '책'이 요한에게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Apocalypsis'라고 기록되어 있다. 계시록에 기록된 기이한 현상들을 보면서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나 역시 '코로나 19' 상황 때문에 사역자로서 더는 하지 못하는 일들이 아니라,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찾고 고민하며, 다시 열심을 내는 계기가 되었다.

나처럼 CCC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전임 사역자의 길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많다. 그동안 선교 단체들은 많은 청년에게 제자훈련, 집회, 선교 등을 통해 도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과 헌신의 가치를 가르쳐 그들을 리더로 세움으로써, 그들이 캠퍼스에서 자생하면서 영적 운동을 유지할 수 있었다. 사실 1년 사이 온라인으로도 유사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참신한 전략과 패러다임이 많이 개발되기도 했다.

나는 지금도 CCC 단기선교와 여름수련회에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수천 명의 학생과 함께 했던 기도회가 너무 그립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역을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구현하려는 전략과 노력들이 학생들의 근본적 필요까지 채워주지는 못했다. 즉 그것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전과 같이 아무리 공동체 차원에서 함께하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청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는 계속 상기시켜주어야 한다고 믿었다. 최근 온라인단기선교를 기획하면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정말한 가지만이라도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를 본받으라고 하신 말씀(눅 10장)이 생각났다. 어찌 보면 '코로

나 19' 때문에 나를 비롯한 간사님들 다수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다시 깊이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에 집중하는 노력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같다.

이전보다는 분명 학생들을 사역에 동참시키는 것이 더 많이 어려워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장하고 싶어 하는 영혼들은 많이 있다. 대학 캠퍼스는 예전부터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신앙을 많이 잃기도 했던 곳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존귀한 아들들, 딸들이 성령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이대로 캠퍼스를 떠나 사회로 나가길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코로나 19'와 함께 우리에게 어떤 전략보다 완벽한 새 패러다임을 열어주셨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스스로 죄인의 옷을 입고 인류와 함께 거한 예수님처럼, 이미 익숙한 환경과 문화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번 학기부터 새로운 캠퍼스에서 간사 사역을 다시 시작했다. 우선 한 달 정도는 매일 세 명의 학생 을 심방하고, 언젠가는 다시 많이 모일 부흥의 때를 기대하며 온종일 메신저를 붙잡고 학생들과 연락한 다. 나는 소망한다. 비록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오 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귀한 사역을 섬기는 모든 캠퍼스 사역자와 선교사님들의 작은 정성, 그것 들이 모여 많은 영혼을 살리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 를 FRITH & LIFE

글쓴이 김용태



서강대학교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전임 간사이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시절 세월호 사건(2014년)을 뉴스로 접하고, 느헤미야 1장을 묵상하던 중 한국 청년들에 대한 사역의 소명을 받았다. 현재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을 직접 섬기면서, 이들을 향한하나님의 비전과 뜻, 목적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전념하고 있다.

거칠고 불안한 일상의 청년과 그걸 지켜보는 교회

- 청년과 교회가 공존하려면

김현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무국장 & 청년 활동가)

'불안'은 이 시대 청년들의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 는 말이라고 한다. 이들은 청소년이던 1997년 IMF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생존 기반을 위협받은 부모 와 선배 세대를 목격했고, 2010년에는 소위 '단군 이 래 최고 스펙'을 가졌음에도 금융위기의 여파로 '이태 백'(20대 태반이 백수), '사오정'(45세 정년) 현상의 당사자가 되었다. 이후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국정농단, 그리고 2020년부터 현재진행형인 '코로나 19' 재난을 연속적으로 경험했다. 청년들의 의식/무 의식 속 '불안'은 이러한 부정적인 외부 경험들에 의 해 쌓여 온 두터운 정서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앞서 열거한 사회적 위기들은 세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를 살았던 모두가 마주한 불행이지만, 청소년 기를 막 벗어나 잠재력과 자유를 펼칠 준비를 한 이들 이 기지개도 켜보지 못한 채 위축되어 버리게 만든 일 들이었다. 특히 2030 세대는 그 시기에 진학과 취업, 결혼과 출산 등 인생 전반에 걸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기에 사회적 변화와 위기를 체감하는 정도와 영향 이 남달랐을 것이다. 저성장과 '코로나 19'로 인해 다 양한 경험의 기회와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신분과 자 원의 불평등은 심화되며,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신뢰 가 깨어지고, 계층, 세대, 성별 갈등의 심화로 공동체 와 공동선에 균열이 생기고, 관계는 최소화되거나 단 절되고 있는 2021년의 현실 위에 청년들은 어쩌면 겨 우 홀로 버티며 서 있다.

그동안 청년들에게 붙여졌던 이름표들을 떠올려보자. '88만원 세대'라 불리던 사회초년생들은 점차 노동소 득과 자본소득의 허무한 '갭 차이'를 헤아리게 되고 결국 주식과 부동산 열풍 가운데 누구는 '벼락 거지'로 누구는 '파이어족'¹으로 변모한다. '부모보다 가난한 첫세대'가 될 거라는 비보에 '밀레니얼 세대'들은 부모와 자신을 건사할 예산을 생각하며 비혼과 비출산을 결심한다. 따라서 요즘 청년들이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 아닌 '안정'이라는 말에 쉽게 동의가 된다. 불안으로인해 치열해지거나, 막막함 속에 무기력해지는 감정들 사이에서 청년들은 평범한 생존을 확보하고 일상과 마음의 '안정'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것일 테다.

겨우 버티고 서 있는 청년, 동시에 이름 그대로 푸르름과 찬란함을 잃고 싶지 않은 청년들은 과연 교회에서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상태일까? 일상에서 분투하는 가운데 사회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위기에 처한 청년들이 교회 공동체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1. 30}대 말이나 늦어도 40대 초반까지는 조기 은퇴하겠다는 목표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 20대부터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며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필자가 강의하거나 글을 쓸 때 반복하는 말이 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 청년을 논하지 말라. '청년의 오늘'을 위해 교회를 바꾸라"라는 것이다. 청년들의 특징, 삶과 신앙의 고민이 주목받고 회자되는 것에 비해, 실제로는 교회나 기성세대가 그 변화된 청년 세대의 특징을 받아들이거나 해결책이나 응답을 잘 내놓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었다. 여전히 기존의 구조와 관점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청년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려는 태도 때문일 것이다. 아니다. 지금 여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년의 오늘에 집중하고 그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함께 해결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소위 '생애주기'를 오롯이 통과하는 것과 '정상 가족'의 형태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더환상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다. 교회와 목회자는 그전통을 고집하기보다 청년들이 선택하는 다른 삶의모습 이면에 어떤 사연과 씨름이 있었는지 대화하는 것에 힘을 들여야 한다.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어떤 잣대와 편견을 먼저 내미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아직 겨우 남아 있는 청년들마저 상처입고 쓸쓸히 돌아서게 하는 잘못을 반복할 것이 분명하다.

2020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청년기본법〉은 청년 발전, 청년 지원, 청년 정책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권리를 보장받으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라는 청년기본법의 취지와 방향은, 한국 교회가 청년 사역에 그대로 빌려와도 좋을 내용이다. 그리고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로지정됐다. 교회도 그날 즈음, 청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청년이 살아가는 사회 현실을 떠올리며, 청년을위해 기도했으면 한다. 청년이 살만한 세상, 청년이었고 싶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예산 편성, 의사결정 및 참여 구조 개편 등에 있어 이전보다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그렇게 된다면 청년과 교회는 한걸음 더 함께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청년과 공존하며 소통하는 교회가 되기위한 방법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안전한 곳이여야 한다. 온전한 나로 존재할 수 있도록 인내와 포용이 머무는 곳, 시행착오에도 비난 하거나 배제시키지 않고 오히려 위로를 주고 재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교회는 청년에게 안전한 곳이다. 둘째,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한다. 성도들이 청년의 이야기에 먼저 "그랬구나"라고 할 수 있다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약자들의 고통에 반응하고 손내밀 수 있는 교회에 청년들은 깊숙이 연결된다.

셋째, 민주적이어야 한다. 교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하 게 존중받고, 발언과 참여의 기회가 동등하게 보장되 는 곳에서 소속감과 자발성, 활력이 생겨나며, 교회도 함께 건강해진다.

청년의 일상과 고민의 진폭은 주로 사회의 변화와 위세대와의 작용에 의해 그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기에 청년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청년의 진폭에 따라 우리 사회는 청년을 수용하고 껴안을 수 있는 유연하고 너른 품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교회 또한 그 품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낡고 굳어버려 청년에게는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는 교회라는 오명을 씻고, 청년의 오늘에 시선을 맞추고 청년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한국 교회가 되어주기를 청년을 살아가는 당사자이자 청년을 지원하는 활동가로서 바라고 기도하다 FRITH & LIFE

글쓴이 김현아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무국장이다. 또 경희대 공공대학원 시민사회 NGO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9년 차 청년 활동가이다. 2018년부터 기윤실 에 '청년운동본부'가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청년에 대해 공부하고 말하고 쓰기 시작했다. 2020년 7월부터는 청년들의 재무와 심리상담/소모임을 지 원하는 '기윤실 청년센터WAY'를 발족시켜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공감과 이해, 청년 세대에게 다가가는 열쇠

정명현 (서울대 서양사학과 3학년)



지난 4월 7일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패의 향방을 가른 계층은 소위 '2030 세대'라 불리는 청년 계층이었다. 당선인인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는 20 대 남성에게서 72.5%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얻었 으며, 진보 성향이 비교적 강하다고 알려진 20대 여 성도 40.9%나 오 후보에게 투표했다. 30대도 남성의 63.8%, 여성의 50.6%가 오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지 난해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 힘' 전신)이 20대 와 30대에서 각각 32.0%, 29.7%의 득표율을 얻는 데 그친 것과 비교했을 때 이번 선거 결과는 괄목할 만하 다. 이는 청년들이 특정 정당이나 세력이 자신들의 삶 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지지를 철회함을 의미한다. 과연 청년들이 어떤 상황 에 놓여 있기에 이러한 실용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것 일까? 대학에 다니는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필자는 '우리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하고자 한다.

우선 청년들이 마주한 가장 큰 어려움은 극심한 취업난이다. 과거에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면 취업의 길

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성적이 우수하지 않거나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졸업 후에 이름난 기업에서 합격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 취업의 현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대학은 취업의 보증수표가 아니다." 청년들은 대학에 진학해서도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학회, 인턴, 자격증 취득, 연구실 생활과 같은 다양한 학내 · 외 활동을 병행한다. 그럼에도 취업 시장에 들어가면 매서운 칼바람을 맞게 된다. 남부럽지 않을 우수한 실적을 쌓아도 대학 졸업 직후 좋은 직장에 바로 취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기에 졸업을 유예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청년 세대는 집값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는 취업난과 결합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다.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이는 방 한 칸조차 도 얻을 수 없으며, 설령 직장을 잡았다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집값은 이미 지난해 9월 10억 원 선을 돌파했다. 10억 원은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아무런 지출 없이 꼬박 28년을 쉴 틈 없이 일해야 겨우 벌수 있는 금액이다. 그렇기에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투기에 가까운 주식투자는 내집 마련의 절망을 해결하고자 하는 몸부림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다. 위험부담은 커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식에 청년들이희망을 걸어보는 것이다. 물론 이를 통해 일확천금을얻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기에 이마저도 청년 세대의진정한 피난처가 되지는 못한다.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위에서 언급한 문제와 더불어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하나 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임을 믿지만, 현 실 앞에서 그러한 믿음을 지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며 치열한 경쟁 속 에서 살아온 청년들은 교회 또는 학내 그리스도인 공 동체를 통해 메마른 마음을 회복하고 싶은데, 은혜를 공급받는 입장이 되기보다는 사역의 짐을 짊어져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도 믿고 의지할 공동체가 있다면 다행이다. 이것마저도 없는 청년은 힘겨운 세 상을 홀로 헤쳐나가야 한다. 다른 그리스도인 청년들 과 교류할 시간도 없다고 느끼기에 학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선뜻 들어가기도 어렵다. 이는 최근 선교 단 체나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학생이 줄 어들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무엇보다 학내에서 반(反)기독교적 정서가 강해지는 것도 학내 그리스도인 청년들을 괴롭히는 주요한 문제다. 이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자유로운 발언과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필자가 다니는 서울대에서는 지난 2020년 인권센터의 주도하에 '인권헌장'이라는 학내 규정을 만들고자 했는데, 헌장의 전문(全文)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동안 한국 기독교에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된 소위 '차별금지법'과 내용상 대동소이하다. 비록학내에서 진행된 일

련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제정 시도가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일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수 있다는 것과 학내에서 성경적 가치를 선포하는 것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그리스도인 학생들은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다. 이렇듯 학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반(反)기독교적 분위기로 인해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점차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밝히기를 꺼리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묻는다면 상황을 급변시킬 묘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청년들 사이의 결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대학에서 홀로 방황하는 그리스도인 청년을 공동체로 초대해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내 선교 단체, 기독교 동아리의 다양한 구성원이 연합체를 이루어 정기적으로 교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성세대와 한국교회가 청년들의 상황과 마음을 더 이해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 이전의 경험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은 그들이원하는 도움이 아니다. 그저 옆에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고 기도해주는 어른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이들에게는 그 자체가 백마디 말보다 더큰 힘이지 않을까. FRITH & LIFE





서울대 서양사학과 3학년 재학 중이다. 서기연(서울대기독인연합) 대표, 서울대 CCC 순장이며 매주 1회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공부 멘토 링 봉사를 나간다. 판교 늘봄교회 청년으로서 중고등부 교사와 주일예배 방송팀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30 세대

김유준 은진교회 담임목사

한국 교회의 2030 세대는 누구인가? 한국 교회는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른 가치를 선호하고 실천한다는 'MZ 세대'로 상징되는 우리 시대 2030 세대와 어떻게 소통하고 사역할 수 있을까? 우리 시대 대표적인 2030 세대 사역 전문가 김유준 목사님(신촌 은진 교회 담임목사, 연세차세대연구소 소장)과 함께 그 해법을 모색해 본다.



일시 & 장소 2021년 8월 5일(목), 오전 10시 신촌 은진교회 목양실 인터뷰어 윤헌준 (숭실대 기계공학과 교수) 정리 & 사진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윤헌준 목사님은 오랫동안 2030 세대를 위한 전방위적 복음 사역을 현장에서 펼쳐오신 분으로 압니다. 섬겨오신 대표적 사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김유준 저는 연세대 학부에서 박사과정(교회사, Ph.D) 까지 줄곧 캠퍼스 전도자로 활동했고요. 1990년대 초부터는 특별히 연세대 학과나 단대별 기도 모임, 기독학생연합회 등을 섬겼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연기연'(연세대기독학생연합회)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의 신앙 활동만이 아니라 단과대학생회, 총학생회등에서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핵심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교목실의 학생선교 책임자로서 학생, 교수, 직원, 신촌 지역의 여러 교회나 관공서와 연계된 선교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연세대 기숙사 근처에 소재한 은진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후부터는 약 3000여 명의 기숙사학생들을 위한 사역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윤헌준 우리 시대 2030 세대의 특징으로는 어떤 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유준 2020년 문화일보 설문조사 결과를 보았는데 요. 현재 2030 세대가 중시하는 가치관 1위는 '공정함'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점인데요. 많은 교회에서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대학생들에게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청년들에게는 '공정'이슈에 크게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적 불의나 '공정'이슈에 침묵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 교회가 전하는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즘

2030 세대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면, 이들이 지닌 사회적 박탈감에 주목하면서, 이들에게 불의와 불공정 등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다는 점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지요.

윤헌준 목사님은 우리 2030 세대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 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유준 실제 많은 대학생이 낭만과 패기와 젊음을 누리지 못하고, 1학년부터 바로 고시나 취업 준비를 합니다. 진로나 직장에 대한 부담을 엄청나게 떠안고 사는 모습을 주변에서 자주 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좋아졌기에 다르게 보시겠지만, 통계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20대 청년들의 평균 채무액이 3천만 원입니다. 어떤 청년들은 "목사님, 저는채무가 없는데요"라고 하는데요. 그때 저는 자료를 알기에, "그렇다면 네 옆 친구가 5천만 원, 6천만 원 빚이 있다는 얘기야"라고 하거든요. 많은 청년이 빚에 눌려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실존적으로 어렵게 하는 문제가 바로 빚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헌준 최근 10년 동안 한국 교회의 2030 세대 비율은 60% 이상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김유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그동안 한국 교회는 해외 선교, 개인 전도 쪽을 강조한 것은 좋았는데, 사회적 책임과 정의 문제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거나 소홀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실망한 80년대 학번들이 일차적으로 교회를 떠났었고, 현재 그들의 자녀들이 주로 20대 청년들인데요. 자기 자녀들도 교회에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본인들이 교회를 안 다니셔도 자녀들은 가면 좋다, 도움이 된다고 하는 긍정적교회 이미지가 있었지요. 둘째는 최근 2030 세대들은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의외로 사회적 공정과 정의에 민감한 세대인데요. 한국 교회의 세습, 목회자들의 도 덕적 타락, 성추행, 재정 횡령 문제 등으로 점철된 부 정적 뉴스들에 실망한 나머지 특히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캠퍼스는 90% 이상 비그리스도인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최근 한 학생을 전도해서 신앙지도를 한적이 있는데요. 이 학생은 "야, 너도 교회다녀? 그런 부류였어?"라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굉장한 압력과 부담을 느꼈다고 토로합니다.

윤헌준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어떻게 2030 세대의 급격한 감소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김유준 대학 캠퍼스의 그리스도인 비율은 한창 때보 다 1/10 수준으로 줄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요. 특히 요즘은 '코로나 19'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저 는 우선 한국 교회가 개인 구원의 복음과 함께, 2030 세대가 민감해하는 사회적 불의, 불공정, 실천적 사랑 등의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요. 신촌의 한 교회는 뜻있는 교인들이 빌라 건물을 내놓 았고, 교회 관리 아래 20~30명씩 최소관리비만 받고 학생들에게 빌려주는 학사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 그 교회는 정말 청년대학생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많은 신경을 쓰는구나,"라는 소문이 나면서, 청년대학 부가 기존 인원에 700~8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저 의 경우는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취업 문제에 고민이 많다는 걸 보면서 2019년 5월부터 사비를 털어서 종 로구 안국동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현재 청년 3명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회적 기업 이죠. 4대 보험을 다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 에 다른 취업이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데도 좋은 발 판이 되더라구요. 또 한 독지가의 위탁으로 제가 원장

2021 SEPTEMBER + OCTOBER

으로 섬기는 그리스도대사단 건물이 있습니다. 20명의 청년들이 공동거주를 하는데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보증금 없이 월 25만원에 사용하도록 했는데, 대학 기숙사보다 좋은 시설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선후배들이 같이 예배드리며 삶과 신앙이회복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윤헌준 2014년 '연세차세대연구소'를 세우셔서, 2030 세대를 위한 본격적 활동을 이어오셨는데요. 그 계기와 이유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김유준 연세대 교목실을 중심으로 기독학생회와 교수님들, 신촌지역 교회 등 여러 캠퍼스 선교 주체들 과 연합으로 섬겨오다가, '한대협'(한국대학교회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캠퍼스 사역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더 효과적인 캠퍼스 선교를 위한 전략 등을 꾸준히 연구하고 나누고, 후원도 받을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윤헌준 또 목사님은 특별히 최근 2030 세대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남다른 관심과 노력해 오신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김유준 평균 3천만이나되는 청년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2030 세대들이 제대로 사회생활을 출발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부채를 탕감해 주는 희년이 있고요. 또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대목에서 '죄'가 원문에는 '빚', '부채'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섬기는 연세차세대연구소에서는 캠퍼스 축제 때, '희년 세대'(jubilee generation)라는 것을 만들어서 활동하는데요. 내용은 청년 부채 탕감캠페인을 벌이면서 쿠키와 음료를 팔며 모금하는 행사입니다. 그 수익금을 가지고 약 7000만 원어치의 부채

를 소각하는 의식을 제가 담임하는 은진교회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또 청년들의 부채가 무이자로 전환되도록,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서 도와주고 잘못된 재정관리 습관을 바로잡도록 하는 재무 교육 프로그램도 열고 있습니다.

윤헌준 지난 10년 동안 모든 캠퍼스 선교 단체 구성원이 이른 바 '반토막'이 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합니다. 이러한 선교 위촉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김유준 기본적으로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계 속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자 리잡고 있고요. 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IMS 등 이 단 사이비들이 많이 판치다 보니까 노방전도를 통해 서 연결되는 곳이 대부분 이단 사이비라는 편견이 있 어서 개인 전도의 접촉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봅 니다. 아울러 선교 단체만이 아니라 대학동아리 자체 가 거의 죽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많은 청년 이 취업난,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 아르바이트, 과외 등으로 바빠서 이제는 선교 단체 활동도 사치스러울 정도로 시간적 여력을 낼 수 없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 19'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가 거 의 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도 있는 것 같 아요. 그래서 저는 캠퍼스 선교 단체도 기존의 패러다 임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요 즘 많은 선교 단체가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 모집하 는 정도 외에는 거의 전도도, 선교도 제대로 하고 있 지 않은 것을 보게 되고요. 사실 비슷한 전도와 양육 프로그램은 이제 많은 교회에서도 하기에, 옛날 방식. 구태의연한 방식을 넘어선 새로운 동력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윤헌준 현재 캠퍼스 2030 세대의 선교가 회복되기 위한 해 법은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유준 2030 세대의 선교는 특별히 장기 비전이 있어 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선교 단체 간사님들이 맡게 되는 캠퍼스가 2년, 1년, 심지어 6개월마다 자주 바 뀌고, 많은 경우 간사님들이 여러 캠퍼스를 함께 담 당합니다. 지역 교회도 마찬가지이지요. 2030 세대는 전문적이고 특수한 사역의 대상인데, 사역자들이 부 서를 너무 자주 이동하지요. 길어야 2~3년입니다. 그 러다 보니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우리 시대 청년들. 전혀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2030 세대의 영혼들을 제대로 섬기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 렵더라도 한국 교회에 '캠퍼스 선교사'(사역자)를 인 내로 키우고 세우는 풍토가 길러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각 캠퍼스에는 재직하는 교수님들과 교직원들 이 계십니다. 이들을 각 캠퍼스의 장기적 전문인 선교 사 자원으로 세우고 공식적으로 파송할 수 있도록 하 는 운동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 리냐하면, 현재 캠퍼스에서의 2030 세대는 실질적 복 음화가 10% 미만의 미전도 종족이기 때문입니다. 그 리고 대학 캠퍼스는 한국 교회의 미래에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는 문화가 전혀 다른 타 문화 권 선교지입니다. 그 때문에 한국 교회는 개교회나 교 단 차원에서 캠퍼스를 품고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하 되, 해외선교사를 파송하여 순수하게 돕는 차원으로 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 어, 많은 교회에서는 해외선교사를 파송하며 지원을 하면서도, 왜 우리 교회에 사람을 데려오지 않느냐고 하지는 않습니다.

윤헌준 한국 교회가 2030 세대를 더 잘 섬기고 사랑하며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김유준 저는 청년들과 선을 잘 지키면서도 이들의 변화와 도전을 위해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또 청년들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자

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진심으로 조언해도 때로는 단한마디에 상처받고 "목사님, 왜 저한테 그런 얘기까지하십니까?"라고 하면서 실제 떠나는 경우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섬김과 소통과 사랑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의 한계도 있지만 요즘 청년들이 전반적으로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 어려워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청년끼리의 만남도 둘이 '100일 반지' 끼고 100일 됐다고 자축하는 등 오래 지속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따라서 저의 입장은 청년들과 함께 단기적인 뭔가를 끌어내기보다는 평생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와 일원으로서 "너를 위해 언제든지 기도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줄 테니 같이 가자"라는 것입니다.

윤헌준 마지막으로 우리 시대의 2030 세대 그리스도인들에 게 전하고 싶은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유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깊 이 깨달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역사와 시대를 뒤바꾸시고, 새역사를 이 루실 수 있다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전 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 라."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오직 그 하나님을 기억하 면서, '내 인생'이 설혹 좌충우돌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하신다 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각자 주어진 몫을 감당하며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더라도 취업이나 고 시 등에만 너무 연연하지 말고 젊음의 패기를 발산하 면서, 이 땅의 삶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사람 (요 8:32)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서 저를 비롯한 많은 청년 사역자와 한국 교회가 계속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고 같이 걸음을 걷고 있다는 것 도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FRITH & LIFE

때를 따라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김혜정 (CUP 대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



즐겁고 열정 가득했던 동역회 사역 1기

신앙과 삶의 이원론적 세계관이 팽배하던 1980년대 후반, 대학 시절 선교단체 활동을 통해 신앙의 기초 를 다지고, 〈죄 많은 이 세상으로 충분한가?〉, 〈기독 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세상의 변혁을 위한 그리스 도인의 비전〉 같은 책을 읽으며 기독교 세계관에 눈 을 떴다. 책을 통해 주어지는 통찰력이 너무 좋아 문 서 사역의 비전을 꿈꾸기도 했었는데, 졸업하던 해에 그 당시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CLIP)에서 출 판 담당 간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냉큼 지원해 서 함께한 인연으로 맺어진 일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초창기 동역회는 세계관 사역과 학회, 월보, 통합연구 편집, CUP 출판이 함께 이루어지던 때였다. 그 당시 CUP에서 출간한 〈학문과 신앙〉, 〈문화명령〉, 〈하나 님의 창조와 인간의 창의력》、〈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과학 교육〉,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 등 50여 종의 소책자와 중책자, 영화, 복제인간, 환경문제 등 시의 성 있는 내용을 다뤘던 무크지, 그리고 성경적 삶의 적용을 다룬 단행본들은 그 당시 많은 관심을 받으 며 기독교 세계관과 동역회의 비전을 전국적으로 확 산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세계관 세미나나 강의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동역하시는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강의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큰 반응을 얻는 바야흐로 세계관 사역의 전성시대였던 것 같다. 그렇게 동역회 간사로 사역하던 시절, 안식년 연수로 미국 기독교 출판사를 탐방하고, 어바나에서 개최되었던 수련회(EARC)에 참석했다. 거기서 백발의 노년 사역자들이 여전히 즐겁게 스텝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나이 되도록 이 귀한 사역을 위해 비전을 성숙시키며 평생 사역하리라는 다짐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 꿈을 주신 분도 이루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었던 것을 느낀다.

VIEW의 설립과 CUP의 전환기

1997년 11월, 양승훈 교수님이 VIEW(밴쿠버기독교 세계관대학원) 설립을 위해 캐나다로 떠나시면서, 국내 사역은 그 당시 기독학술교육동역회 우산 아래 DEW, 통합연구학회, CUP로 사역을 분화하여 운영하 게 되었다. 그동안 동역회 사역의 일환으로 전개되었 던 CUP 출판 사역은 보다 견실한 출판사로 성장시키 자는 취지에서 당시 예영커뮤니케이션의 김승태 대표에게 위탁경영을 맡기게 되었고, 나는 CUP 전임편 집자로 예영 사무실 안에서 일하게 되었다. 위탁경영체제로 들어가면서, 관리에 많은 손이 필요한 소책자와 중책자, 그리고 무크지 형태의 단행본들을 절판하게 된 것은 무척 이쉬운 일이었다. 2년 동안 지속되던 위탁경영체제는 IMF 위기를 맞으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김승태 사장님이 위탁경영을 포기하면서 1년 넘게 CUP가 공회전되고 있었던 것을, 출산으로 퇴직했던 내가 다시 맡게 되었다. 그렇게 독립한 2001년부터는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 워낙 재정이 어려워 "망하면 그만두지 뭐"이런 생각으로 다시 시작했던 일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니 그 또한 하나님 은혜였다.

CUP를 새로 맡으면서, 기독교 세계관의 학문적 측면은 학회나 학회지가 담당하니, CUP는 삶의 적용 부분에 더 주력하자는 생각을 했다. 2003년 출간한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게리 토마스)는 CUP의 지경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어 정신없이 재판을 찍던 기억이 새롭다. 이 책은 CUP 생존의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감사하게도, 기독교출판협회에서 해마다 그 해의 훌륭한 책을 뽑아 시상하는 기독교출판문화상에, CUP 책들이 거의 매년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손봉호 교수님의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가 세종도서에 선정되었고, 2019년에는 〈생각, 하나님 설계의 비밀〉,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성령의 열매〉 두 권이 세종도서에 선정되었다. 매년 5권 안팎의 책을 출간하는 작은 출판사에서 이런 상은 큰 격려와 응원이 되었다.

부족한 이에게 부으시는 은혜

'섬김의 자리'에 글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어

디서부터 글을써야 하나 많이 고민이 되었다. 그런데 글을 쓰면서 새로운 힘을 얻었음을 고백한다. 개인적으로, 거의 20년간 쉬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오다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이 증폭되어 있던 때에 사작된 '코로나 19'는 심적으로 영적으로 큰 위기감을 주었다. '코로나 19'는 기독출판계에도 큰 타격을 주었고, 그런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니 모든 일에 자신감이 떨어졌다. 멍때리는 시간을 좀 보냈더니 이제 새로운 힘이 올라오고 있다. 능력 없고 부족한 이에게일을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실 수 없으리라.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언제나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에 기대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를 향하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꿈꾸기는, CUP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담는 그릇이 되며 우리 시대 나침반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우리가 기획하고 도모할지라도, 그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귀한 책을 출간하는 출판사가 되기를 기도하며,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합 2:14) 그날까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리라 다짐한다. FRITH & LIFE

글쓴이 김혜정

도서출판 CUP 대표이며 편집장이다.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초창기 때 간사로 합류하여 월보〈기독교대학〉、〈통합연구〉편집, CUP 출판, 대표 간사 등을 담당한 바 있다. 동역회 실행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기독교 서적 출판경영인으로서 독자들의 삶에 뿌리 깊은 자양분이 되는 책, 마음 을 담아 가슴으로 전달되는 그런 귀한 책을 만들고 싶다. 그 작은 몸짓이 하나님 나라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스도인 2030 세대, 작은 일부터 소중히 하자

강경만 (취준생, 소프트웨어개발자양성프로그램(42SEOUL) 교육생)

'한국갤럽'이 2021년 3월과 4월에 조사한 자료1에 따르면, 종교를 믿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40%를 간신히 넘기고 있다. 2014년 같은 조사의 결과가 50%였음을 생각하면, 꽤 눈에 띄는 변화라 생각해볼수 있다. 정말 그렇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더 줄었다. 이런 상황 탓에 어딜 가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말할지 말지 여러 번 고민하는 일상이다.

청년들이 왜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 나는 한때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이라고 단순히 생각했다. 그러 나 사실 이는 신앙을 지적인 믿음의 측면으로만 파악 한 결과였던 듯싶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더욱더 현실 적이고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교회 다니 는 사람의 현실' 때문이다. 뉴스나 신문에서 교회에 관 련된 소식을 접할 때면 좋은 내용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코로나 19' 시기를 지나며 교회는 사회 의 빛과 소금은커녕, 반사회적 집단으로 의심을 받는 경우까지 생겼다. 교회는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 임"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루하 루 살기도 어려운데,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피하면 피했지 함께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불행히도 나는 현재 여러 그리스도인 청년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불편한 점이 생긴다. 서로 다른 생활 방식으로 인한 소음, 위생문제, 불평등하게 보이는 역할 분배 등. 혼자 살았다면일어나지 않을 일들도 생기곤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고민했다. "내가말을 하지 말까?", 혹은 "모든 생활 규칙을 문서로 만들어서 배포할까?", "토론회라도 열어야 할까?"와 같은 생각을 했고, 실제로 시도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하나 현실적이거나 구체적인 대안이 되지는 못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했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사실을 하나 더 고백하겠다.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적하는 사람이었다. 돌이켜보면 내가 불편을 말하고 남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동안, 어떤 이는 묵묵히 공동체 일원으로 자기 책임을 다했다. 또 누군가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주어지는가? 어떻게 해결할까?"에서 멈추지 않고 작은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나는 "나에겐 문제가 없어"라는 생각의 수준에 머물렀다.

최근에 난생처음 112에 전화하는 일이 있었다. 늦은 밤 동네를 걷고 있는데 도보와 차도의 경계에 술 취한 상태로 누워있는 사람을 발견했다. 도와야 한다는 생 각은 들었지만 직접 손을 대기는 마뜩잖았다.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 나 역시 자유롭지는 못하다.

^{1.} 한국인 종교 현황(1984~2021):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대신 "귀찮다", "별일 없겠지", "그냥 지나갈까", "왜 저 렇게 있는 거야." 생각하며, 112 신고로 지구대 경찰관 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뿐이다. 다음 날 오전, 경찰서로 부터 귀가 조처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문자를 받았 다. 그 순간 "아.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 이 변하려면 나부터 혁명이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생 각을 잠시 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하니 아니었다. 오히 려 작은 일부터, 작은 순간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했다. 곳돗생활의 어려움도 마찬가지다. 문제를 '한 방'에 해 결하려 하기보다 그저 작은 것들을 잘 실천하는 일들 이 꼭 필요했을 뿐이다. 그래서 나부터 작은 습관을 세 워보기로 했다. 바로 일기 쓰기다. 별 기대 없이 시작 했지만, 어느덧 일기는 내 부족함을 구체적으로 개선 할 방법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 방 정리하는 습관 도 생겼다. 정말 작은 일이지만, 본질에 집중할 수 있 게 만드는 훌륭한 조력자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생활 하며 생기는 불만도 작은 실천을 통해 하나씩 해결하 는 일이 잦아졌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일어나지 않을 혁명보다 강력했다.

다른 청년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을까. 교회 청년들은 인터넷에서 모이고 삶을 나누기에 힘쓰고 있다. 얼마전부터 우리 교회의 몇몇 청년들은 'Discord'를 이용해 큐티 모임을 시작했다. 'Discord'는 인터넷 메신저의 일종으로,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 게임을 할때, 음성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

스다. 또, 단순 채팅뿐 아니라 화상통화도 가능하고, 게시판 기능도 있다 보니 게임 이외에 다양한 용도로 도 활용된다. 다수의 청년들이 평소 이용하던 서비스 의 장점을 잘 살려 신앙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 고 있었다. 시작은 두세 사람의 모임이었지만, 어느새 열 명 이상의 모임이 되어 삶의 영역에서 함께 변화를 만들고자 애쓰고 있다.

'코로나 19'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더 많아졌다. 어려움을 한 번에 타개할 멋진 해법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훨씬 작은 일들일지 모른다.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청년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삶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실천 거리를 찾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나부터 그중 한 명이 되어야겠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지 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눅 19:17) FFIITH & LIFE

글쓴이 강경만

00

현재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으로서, '소프트웨어개발자양성프로그램'(42SEOUL)의 교육생이다.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했지만, 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낯선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 서울 중랑구에 소재하 대광교회 청년이다.

한 2030 세대의 캠퍼스 삶, 베리타스 포럼을 섬기며

최요한 (고려대 학부 언어학 & 경영학 복수전공 재학 중)

나는 매우 보수적인 교회에서 모태 신앙으로 자랐고, 대학에 와서는 난생처음으로 신앙의 혼란을 겪었다. 그러던 차에 만난 베리타스 포럼(Veritas Forum)은 내가 신앙적 혼란을 다시 수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립적 새 신앙을 가꾸어 가도록 해주었다. 또 베리타스 포럼은 내가 현재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는 온라인 선교 공동체인 '랜선베리타스 포럼교회'의 첫정기모임이 열리게 된 계기도 되었다.

한국의 제1회 베리타스 포럼은 2018년, 내가 재학하 고 있는 고려대를 중심으로 처음 개최되었다. 2021 년 베리타스 포럼 스태프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이렇다. 나는 온라인 중심 선교 공동체 '랜선 교회' 운영진 활동을 3년 정도 열심히 해오던 중이 었다. 그런데 베리타스 포럼 스태프로 섬기던 신진 선배(영어교육과)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자 같은 학교라는 동질감을 가지고 종종 다양한 이 야기를 나눴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는 함께 식사하 던 자리에서 베리타스 포럼 스태프로 함께 활동해 볼 생각이 없냐는 제안을 했다. 제안을 받았을 때는 2020년 5월경으로 나는 군 복무 중이었고, 2020년 베리타스 포럼 사전 질문자로 잠깐 포럼에 참여했던 차였다. 그해 가을 다시 제안을 받았고, 마침내 나는 2021년 베리타스 포럼 고려대 스태프로 기쁘게 활 동하게 되었다.

2021년 베리타스 포럼은 2020년과 마찬가지로 '코로

나19' 팬테믹 시국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우선 스태프들이 직접 모여 회의하기가 어려웠다. 스태프 준비 미팅은 물론이고 북토크, 본 포럼 행사 전체를 모두 온라인 위주로 진행해야 했다. 2020년 포럼을 섬겼던 스태프가 한 명뿐이었던 점도 상당히 부담되었다. 또 개인적으로는 실무 능력의 부족과 성실하지 못했던 점 등 때문에 낙담한 시간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은 함께했던 다른 스태프들의 격려와 도움, 지도교수님들의 열성적 응원과지원 덕분에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나는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온라인 기반 포럼이라는 제약은 거꾸로 더 다양한 분들이 시간과 거리의 제약 없이 편하게 참석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도 작용했다. 7월 베리타스 포럼 본 행사에 앞선 두 차례의 북토크의 본래 목적은 소수 인원으로 포럼의 초청 연사이신 알리스터 맥그래스 교수님의 저서를 미리 나눈다는 것에 있었지만, 실제 참여자 수가 80여 명을 넘나드는 큰 성황을 이루었다. 이것은 매우 큰 축복이었고, 본 포럼의 가장 큰 성공요인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7월 3일에 진행된 주강사 알리스터 맥그래스 교수님과 함께 한 베리타스 포럼에서 500여 명이 넘는 많은 참여자 수를 기록할 수 있었다. '코로나 19' 팬데믹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 번에 걸친 베리타스 포럼에 전혀 뒤지지 않는 성 공적인 포럼을 개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배 울 수 있었다.

또한 이번 2021 베리타스 포럼(고려대)의 행사를 준 비하고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지도교수님들(운영위 원)과 스태프들의 노고가 대단히 컸으며, 모든 섬기 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단합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풍성했다는 사실이었 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를 아무리 철저하게 해도 현장에서는 종종 발생하는 각종 변수가 있었고, 그 때마다 스태프들을 많이 놀라게 했던 것 같다. 그러 나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매번 모든 준비 이전에 기도 로써 시작해서인지, 이 난관들을 만날 때마다 생각지 못한 도움들과 해결책들이 등장해서 모든 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으 로서의 나의 고백은 이렇다.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는 우리와 함께하시며 주목하고 계셨기 때문에 매 순 간에 필요한 도움과 해법을 적시에 베풀어 주실 수 있었고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했다.

2030 세대에게 기독교 세계관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독교 세계관은 지적인 활동과 선교 현장 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일상에서 주어 진 일을 맡아 완수할 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현 실적인 해법으로 나아갈 힘과 믿음을 준다. 특히 나 는 이번 2021 베리타스 포럼(고려대)을 준비하며, 예 상하지 못한 변수들과 이를 해결하는 데 인생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는 중보자이자 변호인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나에게 기독교 세계관이 없다면, 일어난 모든 일을 우연의 연속이며 단발적인 사건들로만 이해했을 것이다. 그러나나는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은 일련의 삶의 순간들을 하나의 일관적인 흐름으로서, 즉 인생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 베리타스 포럼을 통해 이 땅의 2030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비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도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이 기독교 세계관을 더 설득력 있고 공감되게 전달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많은 2030 형제 자매들의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린다. FFIITH & LIFE

글쓴이 최요한



고려대 학부에서 언어학과 경영학을 복수전공하고 있다. 높은뜻정의교회 청년부에 출석하고 있으며, 현재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가리지 않 고 자유로운 토론과 교제를 지향하는 온라인 공동체 '랜선교회'의 운영진, 그리고 '베리타스포럼'(고려대) 스태프로도 활동하고 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그 고군분투(孤軍奮鬪)의 현장

고영철 (게임업체 '잔디소프트' 시나리오 작가)

나는 현재 이른바 중소 '게임업체'에 다니고 있는 청년이다.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했지만, 목회자의 길은 나의 소명이 아님을 확인한 후, 현재 직종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다. 내게 그리스도인 청년 직장인으로서의 도전은 입사 첫날부터 시작되었다. 내 학부 전공을 알게된 부서원들은 우선 주일에는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출근을 안 할 사람으로 우려했다. 게임업체는 직종 상업무량이 많은 시기가 올때, 주말에도 회사를 출근해야 할 경우가 있다.

아니나 다를까. 입사 두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바로 그시기가 왔다. 직원 대부분은 당연하다는 듯 토요일. 일요일 모두 출근을 예정하고 있었다. 나는 그리스도 인으로서 고심했다. 내가 만약 연차가 높은 시니어 직 원이었다면 당당하게 "토요일까지만 출근할게요"라고 말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아직 수습 직원 이었기에, 이 기간에 열정과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정규직 전환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고심했 다. 고심 끝에 겨우 용기를 내서 팀장님께 이렇게 말했 다. "팀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일요일 출근이 어 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토요일까지는 제게 할당된 모든 일을 다 끝내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이 부탁은 수 용되었고, 나도 실제 토요일까지 할당 업무를 잘 마쳤 다. 할렐루야! 나는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적 용기를 보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그에 따라 명철한 지 혜로 보답해 주신 것은 아닐까.

일터에서 나의 두 번째 신앙적 도전은 '직장 내 섬김'에 관계된 것이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나는 직장 부서의 막내로서 "오늘 메뉴는 OOO 어떠신가요?"라며 의견을 취합한다. 또 식당에 가서도 바로 앉지 않고 냅킨과 수저를 선배들 앞에 먼저 놓아준다. 개인적으로 빠르게 식사하는 습관이 있지만, 가장 늦는 직장 선배의 타이밍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식후 카페에 가서 메뉴를 취합하여 직원에게 주문하는 것도 내 몫이다. 사무실 정기 청소 시간에는 남들이 가장 꺼리는 창틀 닦기 등에 앞장선다. 내가 직장 생활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은 교회에서 배운 바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그가르침의 최우선은 말씀에 대한 '순종', 다음은 '섬김'이 었다.

그러나 직장에서 이것을 온전히 이행하는 것은 내게 너무 어려운 문제였다. 첫째는 육체적으로 어려웠고, 둘째는 "나의 솔선수범에 다른 직원들이 너무 익숙해져 가는 것 같다"라는 점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었다. 나보다 단지 몇 주 빠르게 입사한 직원이 나의 솔선수범을 당연시하며 받으려고만 하는 것을 보았을때, 정말 마음이 힘들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부서원들이 거의 모두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기에 시작한 솔선수범이었으나 대체 어느 수준까지 계속 이렇게 섬길 수 있을지 나도 내가 궁금해졌다.

일터에서 세 번째 신앙적 도전은 '직장 내 인격적 대



우'와 관련되었다. 현재 일터의 문화 중 하나는, 직급이나 연차에 상관없이 무조건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고작 몇 주 먼저 입사한 선배가심심찮게 반말을 하였다. 연차가 높은 선배이거나, 연장자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분의 경우는 전혀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반말을 했다. 이때 나는 "이것을 어느 수준까지 감내해야 하나" 싶었다. 그뿐만 아니라 회의나 사담 중에도 너무 자주가르치거나, 훈계하려는 태도가 가끔 선을 넘을 때도 있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가 않았다.

마침내 지난 8월 초 사건이 터졌다. 부서 회의 중에 분분히 논쟁이 있었고, 그분이 내게 인신공격적 말을 했다. 그때 나 역시 참지 못한 채 강하게 맞받아쳤다. 곧 바로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였기에 더 격화된 감정 없이 마치는 듯하였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을까. 회의는 더 이어졌지만, 회의장 전체에는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회의 후 나는 잠시 회사에서 나와 산책하며 속으로 기도하게 되었다. "주님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때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하나였다. 그동안의 나의 처신은 '어리석음' 자체가 아니었을까?

혹시 한 달 전부터 그 사람이 비인격적인 언행을 보일 때마다 쉽게 넘어가지 말고 잘못을 짚어 주었다면 어 땠을까? 혹시 그러지 못했기에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경시해도 된다고 여겼던 것은 아닐까? 또 이러한 나의 상황 해석은 얼마나 정당한 것일까? 흥미로운 점은 그분의 경우 그 사건 이후 분명 더 남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혹시 우리가 세상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처신을 한다면서 어쩌면 무작정 감내하고, 기독교 정신으로 상대방의 비인격적인 모습조차 무조건 용인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주께서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솔직히 잘 모르겠다. 다만 계속 기도하며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잘 깨닫게 되기를 소망한다.

이와 같은 것이 내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서, 직장 생활 초년생으로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솔직 한 어려움이었다. 과연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으로서 "대체 어느 수준까지 타인의 비인격적 언행을 참아 주고, 묵묵히 섬겨 주어야 하나? 예수님께서 행 하신 수준에까지인가? 고작 나 같은 죄인이?"라는 생 생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 나 역시 지금 당장 그 정답 을쉽게 말할 수는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 계 속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것이리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잠언 1:7). FRITH & LIFE





중소 게임업체(잔디소프트) 시나리오 작가이다.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했고, 캠퍼스 선교단체(JDM)에서 활동했다. 신촌 은진교회 청년이며 구약성경에 나오는 희년사상의 구체적 구현을 위해 일평생 바칠 것을 서원했다.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김정수 (백석예대 교목실 조교)

누구든 한 번쯤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성격과 성향은 어떠한지?"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이러한 질문들의 대답은 대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일, 기뻐하시는일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있을까?

나는 28살까지 일반대학 공대 두 곳, 예술대학 세 곳을 다녔다.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면 대학에서 거의 모든 20대를 보냈다. 지금도 대학 교목실에서 조교로 근무 하고 있다. 나 역시 수없이 고민했고, 많은 질문을 치 열하게 던졌던 청년 중 한 명이라는 생각을 한다.

오랜 대학 생활 동안, 나는 교회에서 대학부 회장과 주 일학교 교사로 섬겼다. 대학 총학생회장으로 봉사할 기회도 있었는데, 그때 정말 많은 학우들과 함께 소통 하고 고민도 했었다. 그때 든 생각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고, 모두를 사랑하시며 소중하 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었다.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사 람들은 정말 없었다. 그 각각의 청춘들마다 하나님께 서 주신 은혜와 은사가 모두 달랐다.

나도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더 잘하고 더 즐거워하는 분야가 있었다. 그것은 음악이었다. 그런데 나는 주변 상황과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하고 싶은 일을 조금더 일찍부터 하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일반대 공대 시절은 줄곧 스트레스와 고통의 연속이었다. 전공과 관

련된 길이 결국 내가 가야 할 숙명의 길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에 그저 참고 견뎠다. 그러다가 다행히 나는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과 기도의 과정을 거쳐 지금음악인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야 내가 전에 왜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간을 보냈는지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절조차 주변의 상황과 개인적 마음의 준비, 구체적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발걸음을 위한 초석으로 삼게 해주셨다.

나의 비전은 "삶 자체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나는 현 재 이 비전을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통해 다 가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비록 그 과정들이 녹록지 않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며, 물질 적으로 풍족하지도 않더라도 말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충분히 채워 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나는 동시 대의 2030 형제자매들에게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제 안하고 싶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시대가 바라 는 직업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 사를 기도하는 가운데 잘 인지하고, 오직 감사함으로 자신에 맞는 진로를 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아울 러 꼭 마음에 새겨뒀으면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 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누구도 예외 없이 존귀 하게 여기신다는 것이다.

나는 현재 예술대학의 교목실에서 조교로 일을 한다.



사랑으로 학생들을 섬기고 있다. 동시에 유튜브 '동그 라이브'(CIRCLIVE)라는 채널을 운영하며 받은 은혜와 은사를 노래로 전하며 많은 이들과 행복을 나누는 삶 을 살려고 노력한다. 사실 이러한 나의 일은 세상의 눈 으로 보면 대단하지도 누가 알아줄 만한 일도 아니다. 그러나 나의 최선이 그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행 복을 주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으 로 만족할 뿐이다. 세상에는 일에 귀천이 있을지 모르 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는 그러한 나뉨이 없다. 그래 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하 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로 이 땅을 산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일이면 되는 것 이다. 각자 잘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다르기에 오직 일 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말씀대로 이웃 을 사랑하면 된다. 오직 예수님처럼. 이 땅에 형제자매 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섬겼으면 좋겠다. 하나 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선하고 풍성한 길로 이끄실 것이고 들어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사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 반대 졸업 후 예대에 다시 입시를 준비하면서 "실패하 면 어떡하지?", "이 길이 맞는 길일까?" 등 많은 고민 이 있었다. 또 내가 전공한 실용음악 특성상 주로 프리 랜서로 일하기 때문에 정해진 것도 없고 재정적인 문 제도 걱정이 된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한다. 하나님 앞 에서 연약한 인간임을 먼저 인정한다. 내 힘을 빼고 세 상의 물질적인 것들보다 위에 계시고 그것을 다스리 시는 주님을 오직 내 안에서 신뢰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할 것 같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받은 비전을 품고 매사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더 노력할 것이다. 언제 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주님을 신뢰한다.

FRITH & LIFE





서울 백석예술대학교 교목실 조교이다. 충북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졸업 후 비전을 위해 백석예술대학교 실용음악 보컬전공을 졸업한 후 학교 교목실 조교로 섬기고 있으며, 유튜브 '동그라이브 CIRCLIVE'라는 채널을 운영하 며 비전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스승에 그 제자, MZ 세대에게

- 〈자산어보〉에서 사제지도(師弟之道)를 읽다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 소장)



영화 자산어보(2021, 이준익 감독)는 정약전의 〈자산어보〉(茲山漁譜)를 기초로 만들어졌다. 정씨 가문은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서양문물을 받아들이고, 특히 가톨릭 신앙을 따르게 된다. 유교와 사직(社稷)을 숭 앙하던 조선 왕조는 이를 반역죄로 다스리고 가차없이 탄압한다. 정씨 가문 중 큰 형 정약현은 순교하고, 그의 사위 황사영은 프랑스 군대를 보내어 신자들을 보호해 달라는 백서를 써 보내려다 발각되어 역시 순교한다. 다산의 형 정약종 또한 죽음으로 신앙을 지키므로 정씨 가문은 사교(邪敎)를 따른다는 죄목으로 파문지멸(破門之滅) 당하게 된다. 정약전은 정약용의 둘째 형으로 신유박해(순조 1년, 1801)로 인해 흑산도로 유배당한다.

흑산(黑山)에서 새 세상을 만나다

세상의 끝 흑산도로 유배된 정약전(설경구 扮). 지방 관리들로부터 모욕과 푸대접을 받는 조정의 유생은 섬사람들에겐 호기심의 대상이다. 사람이 살 수 없다 는 바다 밖의 섬까지 쫓겨난 저 죄인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유학에 도를 튼 고고한 유생이 과 연 이 섬에서 버틸 수 있을까? 이 유학자는 섬 한 귀퉁 이 어느 아낙의 사랑채에 기거하게 된다.

그리고 지내던 어느 날 청년 창배(변요한 扮)와 만난 다. 창배는 양반의 서자로 태어나 출세를 하고 싶지 만 환경에 묻혀 꿈을 펴지 못하던 '상처받 은' 젊은이였다. 그래 도 형설지공(螢雪之 功), 와신상담(臥薪 嘗膽)이랄까 구하기



THE PARTY OF THE P

힘든 사서삼경을 독파하며 독학으로 살아가던 날. 그에게는 자신도 모르는 엄청난 재능과 실력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 바다와 함께 살아온 창배는 물고기에 대해 해박한 경험을 한 터였다. 일종의 '물고기 박사'라해야 할 수준이었다. 한편 정약전은 바다를 거닐며 상념에 빠져 지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아! 물고기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겨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하지 않겠는가. 실학자 정약용의 형다운 통찰(Insight)이 아닐 수 없고, 학문 또한 홍익인간(弘益人間)에 기여해야 한다는 실천가다운 면모였다. 이 나이 든 유학자는 평민 창대에게 이렇게 제안한다. "내가 아는 지식과 너의 물고기 지식을 바꾸자."

사대부와 평민, 서로 스승이 되다

혹산도는 중앙 조정에서 보자면 버려진 곳이다. 같은 시기 정약용은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고, 자신은 더 멀리 바다 건너 흑산도에 와 있다. 유배지에서 사대부 선비가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정약전은 스스로를 내려놓는다. 창대와 어깨를 같이하고 서로 공부

하자고 제안하니 당시 풍습으로 보자면 파격적 제안 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여러 파격이 있다. 사대부와 평민이 바닷가에서 머리를 맞댄다는 것, 나이든 유학자와 선머슴 섬사람 젊은이가 물고기를 앞에 놓고 세심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는 것, 장유유서(長幼有序)가 엄격하던 시기에 흔치 않은 풍경이었다. 고고한 선비 유학자와 독학으로 공부하는 햇병아리 과거 도전자가 어찌 한솥밥을 먹으며 지낼수 있단 말인가. 당시의 세계관으로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조합이었다. 그런데 그 둘은 해냈다. 풍습의 벽을 허물고, 나이의 벽을 뛰어넘고, 신분의 차이를 없애고 정약전과 창대는 사제지정(師弟之情)을 쌓아갔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자산어보〉(茲山魚譜, 1814)이다. 이 책은 유학자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에서 탄생한 해양생물학의 한 모범이라 하겠다.

<자산어보>가 MZ에게

시대가 변해도 사람은 사람이다. 시대가 아무리 디지털, AI, 메타버스 등으로 무장하여도 사람은 여전히 아날로그이다. 이성과 감성, 그리고 영성이 어우러진 영적 존재이다. 현세대의 젊은 층을 'MZ 세대'라 부르며 구분 짓는데 이들의 특징은 디지털 생활이 기본이고, AI 등 기기를 도구로 생각하고, 강력한 능동적 소비를 감행한다는 것이다. 이런 세대적 특징에 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너무 즉흥적이고 피상적이며 감정적 소비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자산어보를 세상에 출현케 한 힘은 사제지정이다. 그 사제지정에 사제지도(師弟之道)가 들어있다. 자산어 보의 스승과 제자는 이런 상관관계를 아름답게 승화 시킨다. 스승과 제자는 하나여야 한다. 스승과 제자는 격이 없어야 한다. 스승과 제자는 서로 받아들이고 인 정해야 한다. 스승과 제자는 한솥밥을 먹어야 한다. 스 승과 제자는 몸과 영혼으로 부딪혀야 한다. 스승과 제 자는 호연지기(浩然之氣)로 소통해야 한다. 스승과 제 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스승과 제자는 진실 추구라 는 공통의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 스승과 제자는 서로 에게 본(本)이 되어야 한다.

사랑의 본(本), 성경에 보이는 사제지도

성경에 스승과 제자 관계로 보이는 인물군이 있다. 모 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예수님과 제자들, 바 울 사도와 디모데 등. 예수님은 "랍비요 선생"으로 이 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 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 13:14),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전 4:16), 믿음의 주이신 예 수님, 믿음의 사도이신 바울 사도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낮은 자리에 내려가시고, 낮은 곳에서 섬기시 며, 몸소 고난도 자처하셨다. 본의 본질은 사랑이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서 서로의 신뢰가 요구된다. 선생된 자들은 '버르장머리 없는 요즘 아이들'이란 선 입견에서 벗어나고, 요즘 세대는 기성세대에 대하여 '꼰대, 일빠'로 매도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정약전과 창대 사이에 작동하였던 본의 한 모습이 역사적 〈자산 어보〉를 탄생시키는 이치. 현재에도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FRITH & LIFE

글쓴이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 소장이다. 단국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독일 뭰헨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을,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Dr.phil)을 공부했고, 최근 은퇴할 때까지 안양대 기독교문화학 교수였다. 저서로 〈광장에서 문화를 읽다〉, 〈영화, 그 의미에 길을 묻다〉, 〈상상력의 유혹〉, 〈대중문화 시대와 기독교 문화학〉 외 다수가 있으며 문화운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2030 세대의 미술을 말하다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

2030 세대는 동시대 문화에 개방적인 편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에 익숙한 이들에게 정보력은 소재 발굴의 막강한 무기가 된다.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과 IT 장비를 경험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소위 'MZ 세대'는 여러 사이트를 통해 획득한 이미지 정보가 창작의 에너지원이 되어 그들의 작품에 속속 도입된다. 이들의 작품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하며 참신성으로 눈길을 사로잡기도 한다. 그러나 예술의 근간을 이루던 '창작' 개념이 '콘텐츠 큐레이션'의 한형태로 바뀌는 현상도 목격된다. 근래에는 '좀비 형식주의'(zombie Formalism)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20세기 미술의 타임라인을 가로질러 과거의 추상 모티브를 대중음악의 리믹스, 매쉬업, 샘플링기법으로 활용한다. (그림 1)



좀비 형식주의를 알린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영원한 현재전시장면(2014)

일종의 스타일 전용(轉用)인 셈인데 과거 것의 재조합을 통해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시도에 대해 비평가 피터 쉬제들(Peter Schjeldhl)은 '병든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젊은 작가들의 딜레마'를 볼 수 있다며 이 작가들은 "영감을 주기보다 불만을 자아낸다"며 일축했다. 그런

가 하면 펜데믹으로 촉진된 비대면 사회를 맞아 가상 으로만 존재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NFT 미술과 크립토 아트(Crypto art)가 붐을 타기 시작했는데 디지털 아트 에 익숙한 세대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으나 원작이 지닌 '예술의 상징적 힘'과 '기능'을 찾아볼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닌다 (그림 2)



유와23-란 작가가 제작한 디지털 러브 연작중 일부(2021) NFT 미술

정보의 폭주는 미술의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한 요인이 된다. 과거에는 100년 이상 가던 것에서 근 래에는 10년, 아니 1년을 견디지 못하고 새것으로 갈 아입는다. '좀비 형식주의'나 'NFT', '크립토 아트' 역시 새것을 추구하다 지친 미술가들이 선택한 고육책일지도 모른다. 이런 미술의 순환을 보면서 T. S. 엘리어트의 시 "우리가 '지식' 중에서 잃어버린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정보' 속에서 잃어버린 '지식'은 어디에 있을까"(〈바윗돌의 합창〉 중에서)라는 말이 떠오른다. 즉 정보가 홍수인 세상에서 정작 '마실 물'은 없다는 얘기이다.

청년 세대일수록 탐구심이 높으며 특히 요즘과 같은 정보사회에서는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 외부환경이 안겨주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통찰하지 못하면 속수무책이 되기 쉽다. 그래서 C. 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눈 앞에 펼쳐지는 친숙한 일상에 눈이 팔려 생소하기만 한 미지의 존재는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다"라고 지적한다. 이 말은 청년 작가, 특히 기독교 신앙을 지닌작가가 현장에서 맞닥뜨릴 상대가 만만치 않음을 환기시켜준다. 온갖 방해를 물리치고 신앙과 예술이 접목된 작품을 할 수 있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값진일일 것이다.

세속주의가 만연한 미술계에서 작가로서 소명을 실천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바울이 아레오바 고에서 아테네인들의 문화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한 것 을 전범(典範)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한시적인 현 대문화라는 '아테네'를 무시간적인 그리스도와 복음의 아름다움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창조적인 예술 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폴 굴드(Paul M. Gould)는 예 수님이 은유와 이야기, 비유, 그리고 과장법과 다양한 창조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청중들을 모이게 하셨으며 그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이해시키도록 하셨다는 사 실에 착안하여 '상상적 사유하기'(imaginative reasoning)를 제안한다. 그는 '상상적 사유하기'를 우리의 변 증이나 교육, 예술 영역에서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 하는데, 이는 현대인의 삶에서 성경적인 개념들, 즉'죄' 와 '영혼', '용서', '심판' 등을 이해시키기 어려워져간다 는 현실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말하자면 기독교 예 술가는 세상의 지적인 상상력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에 게 다가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 주장도 기독 교 작가가 현실 문화에 참여하는데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 작가라면 좀더 큰 틀 에서 우리의 문화에 대해 성찰해봐야 한다. 인간의 타 락 이후 많은 부분이 죄로 손상을 입었고 예술도 예외 는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계가 부패되어 곳곳에서 탄식과 고통을 받고 있다.(그림 3)



매리 맥클레어사과나무의 아이들,종이에 혼합재료(2000)

구령(救靈) 사역도 꼭 필요하지만 카오스 상태에 빠진 문화에 '새로운 생명과 생동감'(Albert Wolters)을 불어 넣는 것 역시 그리스도인의 몫이다. 성숙한 작가라면 세상의 물신주의, 환경문제, 약자 존중, 인권, 시민으 로서의 책임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 문화를 회복하는 일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남들처럼 '선망받는 스타'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청년 작가의 소망은 아니다. 우리 가 개인적인 욕망에 휘둘릴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추 구하는 일은 후 순위로 밀려날 것이며 그럴 경우 리트 머스 종이처럼 점차 세속문화에 물들어갈 것이다. 청 년 작가의 설 자리는 예술계이다. 아테네처럼 세속문 화가 범람하는 소굴이 우리의 사역지이다. 소명을 지 닌 예술가의 초대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명망가나 엘리 트 시장 종사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뜻밖에도 우리 가 까이에 있다. "불모지대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남방 열대 지대에 있지 않고, 불모지대는 당신 가까이에 있는 지 하철 안에 비집고 들어와 있으니 불모지대는 당신 형 제의 가슴 속에 있다"(T, S, Eliot), FRITH & LIFE



글쓴이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학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동서 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미술〉,〈한국 현대 회화의 발자취〉,〈한국 미술 노트〉〈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예술과 영성〉,〈미술의 터치다운〉,〈박수근〉,〈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칼빈주의 예술론〉등이 있다.

혐오와 차별의 시대의 대안: 배제와 포용

심재형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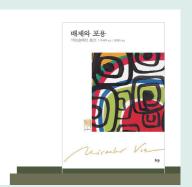
나는 카이스트 재학시절 선교단체 IVF에서 활동하였다. 〈배제와 포용〉은 IVF와 관계가 있는 출판사 IVP에서 출판된 모던 클래식 시리즈 중 하나이다. 두꺼운 분량(550면)의 이 책을 학부 시절이었다면 읽지 않았을 것 같지만, 전에도 추천은 여러 번 받았고, 좋은 책이라는 것도 주변 친구들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대학원에 와서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동아리 렉스(RACS)에 가입하게 되었고, 함께 이 책을 선정해서 읽게 되었다.

《배제와 포용〉은 총 7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자 볼프 (Volf)는 머리말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엿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는 저자 볼프가 1990년대 세르 비아인들로부터 인종청소, 도시의 파괴 등 잔혹한 폭력과 억압을 당한 쪽에 고향을 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저자 볼프는 자신의 강연이 끝나자 "당신은 체트닉(사람들을 강제 수용소에 몰아넣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도시를 파괴한 악명높은 세르비아 전사들)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오,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나는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말일까? 저자는 우선 1장에서 '거리두기'와 '소속하기'의 개

념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세계와 문화의 세계라는 두 세상에서 중첩된 삶을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관점에 거리를 두고, 타자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경계선에 선 시점의 사람이 되어여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자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떠남과 속함의 세상에서 삶을 채워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저자 볼프는 크게 다음 두 부분으로 저술의 목적에 다가가려 한다. 첫 번째 부분은 2장 '배제', 3장 '포용', 4장 '성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두 번째 부분은 5장 '역압과 정의', 6장 '기만과 진실', 7장 '폭력과 평화'라는 주제를 다룬다. 특별히 2장에서는 '배제'에 대한 개념이 제시된다. 배제는 '결합'과 '분리'를 거스르는 요소로서, 상호 의존을 벗어나 독립의 위치를 차지하려는 태도를 수반한다. 또 3장에서는 포용의 개념을 깊이 이야기한다. 포용의 대표적 예시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이다.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고, 아버지는 그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다. 이 아들은 실패 후, 가족으로 돌아오기보다 그저사람으로서 대우를 받고자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를 놓아버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집 나간아들을 포용했지만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의 가족



〈배제와 포용〉 / 미로슬라브 볼프 / 박세역 역/ IVP / 2018

관계를 놓아버렸다. 더이상 동생이 아니었다. 다만 둘째보다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함에 분노했다. 아버지는 기존 규칙과 질서를 재조정하면서까지 오직 사랑을 통해서 죄지은 타자 아들을 포용하였다. 이 이야기와 해석에 포용의 비밀이 담겨있다. 4장은 성 정체성 이야기이다. 볼프에 따르면, 하나님은 성적 구별을 전적으로 초월한 존재이시며 하나님에 관한 언어가 지닌, 즉구체적으로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내용은 모두 오로지 피조물의 영역에서 유래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특징과 역할은 어머니와 여성보다 아버지와 남성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위(하나님)로부터의 논증이 아니라 아래(인간)로부터의 논증이라고 주장한다. 5장에서 7장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겠다.

다만 나는 〈배제와 포용〉을 읽으며 느낀 개인적 의미와 추천 이유를 이렇게 나누겠다. 우리가 사는 동북아지역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미국, 한국 등이 서로경제적, 지리적, 군사적, 사상적, 역사적으로 복잡한 이해관계로 엮여있고, 이로 인하여 늘 긴장감이 높다. 또이 나라 지도자들은 얼마 전까지 아베, 트럼프, 시진핑, 김정은, 푸틴이었다는 사실이 그 긴장감을 상징적으로보여준다. 이러한 동북아의 정세에서 어떻게 우리는평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7장에서 소개되는 볼프의 평화론은 얼핏 보면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러나 성령 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며, 믿는 자들에게 그 역사 는 계속되고 있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 볼프는 실마리가 거의 없어 보이는 문제에 있어서조차 우리를 그 해결의 실마리로 자신있게 안내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에 따르면 우리는 오직 그 길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단순하지만 매우 심오하고 명쾌한 답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나는 이 책이 21세기에 일어나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일들까지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일어날 많은 과제의 해답에 대한 실마리만큼은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책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FRITH 8 LIFE

글쓴이 심재형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부와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막 졸업했다. 현재는 군입대를 기다리는 백수이다. 재학시절 선교단체 IVF와 기독교 세계관 연구동아리 렉스(RACS)에서 활동하였다.

2021 SEPTEMBER + OCTOBER

39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야기

김희진 (서울대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친구에게 오랜만에 반가운 연락을 받았다. 대학원 성경공부 모임에서 만난 친구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저서 〈누가 빈곤의 도시를 만드는가〉의 발간소식을 전해왔다. 이 책은 서울 동자동 쪽방촌 사람들의 이야기다. 저자는 현재 쪽방촌에서 쪽방 비슷한 방을 얻어 살고 있다고 했다. 그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살며 도시빈민 연구가로 살고 있었다. 그래서 이 책은 어쩌면 쪽방촌 주민들의 진짜 삶의 자리와 목소리를 달려주는 이야기다. 바야흐로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낼수 있고 자기의 미디어를 가지는 시대가 왔다. 하지만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니, 어쩌면 목소리를 내어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일 수도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저자가 그목소리들을 대신 함께 내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자동 9-20 사태

이 책은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의 '대항 기억'으로 이야 기를 시작한다. 2015년 2월 한겨울, 동자동 쪽방촌 한 건물에는 쪽방 건물 공사를 해야 한다며 건물주가 세 입자 전원에게 자진 퇴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이 붙었 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합당한 요구였을지 몰라도 한 겨울에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쪽방촌 주민들에게 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다. 예전이라면 무기력 하게 쫓겨났을 쪽방촌 주민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민원을 제기하고, 버티고, 공론화를 시키는 등 적극적인 투쟁으로 가까스로 주거권을 지켜낸 투쟁. 이를 '동자동 9-20 사태'라고 부른다.

쪽방도 필요하다

쪽방촌을 재개발하겠다는 결정, 열악한 환경을 개선 하는 계획은 언뜻 당연하고 괜찮아보인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에 원래 쪽방에서 살던 '사람들의 삶'에 대한 고려는 없다. 쪽방이 없어질 때마다 쪽방에 살던 사람 들이 갈 곳도 함께 없어진다. 쪽방이 아무리 열악한 거주환경이라도 길거리로 나앉기 전 최후의 수단으로 쪽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삶이 있다. 도 시 안에는 다양한 주거 형태가 필요하고, 쪽방촌도 그 게 아무리 열악한 형태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공간이다. 도시빈민들의 생존권과 거주권을 보장하는 대책으로 저자는 '공공 쪽방', 구체적으로는 '쪽방 매 입형 공공주택 모델' 도입을 제안한다. 쪽방촌 건물의 소유권이 민간에게 있는 이상 도시빈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는 어려우며, 정부가 쪽방촌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 공공 쪽방을 공급한다는 아이디어다. 공식적 인 쪽방촌 주민인 '건물주'가 아니라 실질적인 쪽방촌 주민인 '쪽방촌 사람들'을 위한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쪽방촌 주민들이 살아갈 힘, 공동체성

쪽방촌에 살다가 임대주택에 살게 되면 행복할까? 저 자는 임대주택의 물리적 여건은 쪽방촌보다 월등하



〈누가 빈곤의 도시를 만드는가〉 / 탁장한 / 필요한 책 / 2021

지만, 실상은 임대주택이 삶을 영위하기에는 더 고독한 공간임을 지적한다. 그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쪽방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책에서 '삶의 터전으로서의 쪽방촌'을 주목한 점이 인상적이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쪽방촌 마을이 역설적으로 내부 인간관계의 밀도를, 사회적 자본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무리 열악해도 쪽방촌에는 서로를 위한 마음이 있고 사람 사이에 오고가는 정이 있었다. 주택 정책에서는 이 농밀한 네트워크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저자는 지적한다.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을 떠올릴 줄 아는 상상력이 정책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쪽방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책을 읽는 내내 '연결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 이웃의 이야기 로 인식할 수 있는가? 이것은 어쩌면 미디어의 역할이 다. 저자는 미디어가 빈곤을 어떻게 조명하고 소개했 는지를 상세히 살폈다. 미디어가 무엇을 어떻게 보여 주는지에 따라 대중은 빈곤에 대한 이미지를 달리 형 성한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진지한 공감을 하게 되는 가? 내 곁의 사람들의 일로 인식하게 되는가? 미디어 가 진지하게 던져야 할 질문이다.

쪽방촌이나 도시빈민 이야기는 내가 사는 세상 속에 없는 이야기였다.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마주칠 일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류의 기사를 접할 때면 잠깐 마음 아파하다가도 금방 잊어버리고 잘지냈다. 2015년 성탄절 쪽방촌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었다. 봉사하러 간 곳이 '동자동' 쪽방촌이었다는 걸이 책을 읽으며 알았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내가 봉사활동을 한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던 것 같다. 저자가 들려주는 쪽방촌 이야기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사회복지를 공부했다고 하지만, 누구를 위한 이웃사랑인지, 누구를 위한 사회복지였는지 자문하게 된다. 저자가 쪽방촌에 들어가 그들과 연대하는 삶은 존경스럽지만 나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라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 같다. 다만 이 책은 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와 연결된 사람들의 범위를 확장해서 생각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했다. FRITH & LIFE





서울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대학원 시절, 〈누가 빈곤의 도시를 만드는가〉의 저자와 함께 공부했다. 공동체, 정치, 교육 에 관심이 많다. 최근까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였고, 현재 새로운 일을 준비 중이다.

2021 SEPTEMBER + OCTOBER

세상과 대화하는 기독교를 제안하다

- 한 신학자의 인문 고전 읽기

정재경 (시흥 오병이어교회 전도사, 북 소개 유튜버)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여러 질문 사이에서 씨름하고 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기독교 공동체 는 여러 방식을 통해 세상의 비판과 지적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다. 이런 현실에서 어떤 이는 영성을 더 강 조하고, 다른 이는 정치적 참여를 권장하기도 했다. 신 학자이자 다독가로 알려진 저자 김기현 목사는 책의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해결책으로 제안하다.

저자는 인문 고전으로 알려진 15권의 책을 소개하며 신앙적 질문을 던진다. 그가 가져온 책들은 이른바 '위험한 것'부터 많은 목회자가 추천하는 것까지 다양 하다. 누군가에게는 위험하다고 여겨지고 누군가에게 는 고전으로 평가되는 책들을 가져와서 그는 정직하 게 질문하고 신앙적 이야기를 나눈다. 이 책에선 경건 의 의미, 정치 참여, 안식과 쉼, 죽음, 희생 등 기독교 신앙에 중요한 질문을 여러 고전과 함께 연결한다. 이 책의 1장은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통해서 "무사고는 무배려"라고 해설하고 독자에게 생 각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묻는다. 이때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말하지 않고 타 인에 대한 생각, 배려가 가능한 "생각"을 주목한다. 아 무리 개인이 특정 집단, 공동체에 속해서 성실하게 일 해도 타인을 생각할 줄 모르는 "무사고"로 행동한다면 그 결과는 끔찍할 수 있다는 점을 1장에선 나치 밑에 서 성실히 일한 아이히만에서 발견한다. 2장에서는 아 우구스티누스의 〈그리스도교 교양〉이 소개된다. 여기

서 신앙과 교양에 대한 성찰은 기독교 신앙의 여러 유 산과 독서라는 행위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기독 교 신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를 통해서 말하시 고 알리신다는 점에 있다. 결국 독서는 신앙의 연장이 자 기본적인 태도가 되는 것이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얼 쇼리스의 〈희망의 인문학〉을 통해 인문학과 신앙 의 관계가 소개된다. 저자는 기독교인들이 종종 인문 학을 위험한 것으로 여기는 현상에 대한 질문을 던지 고 그럼에도 인문학을 통해 희망을 가진 사람들의 이 야기를 소개해준다. 쇼리스는 가난해서 교육의 혜택 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인문학)이 인 간다운 방식으로 살아갈 기회이자 변화를 제시한다고 설명한다. 이 대목에서 저자는 교회가 긍정적 방향으 로 사람들을 위한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제안한 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가 모든 이들에게 공동선이 될 수 있다는 의식이지 않을까 생 각이 들었다. 4장에서는 철학 고전으로 알려진 플라톤 의 〈에우튀프론〉이 소개된다. 플라톤의 저술에서 나 오는 이야기는 광신에 가까운 확신이 어떠한 문제와 폭력을 초래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이 대목에서 저자 는 신앙의 완고함에 대해서 질문한다. 저자는 신앙의 위험성은 반성하지 않음에 있다고 정리하고 유연하고 겸손한 태도를 제안한다.

5장에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험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칼 마르크스의 저술이 등장한다. 여기선 마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 김기현 / 조이 / 2021

르크스의 〈헤겔 법철학 비판 서문〉을 통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과격한 해설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소개한다. 과연 우리가 가진 신앙/종교는 현실에 대한 저항을 없애고 그저 현실을 반영하는 것만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이었다.

계속해서 저자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시민 불복 종〉이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통해서 정치, 리더십에 대한 해설을 이어간다. 기독교 신앙을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서 특정 정치적 입장으로만 해석하는 분위기에 반해서, 이 책은 기독교 안에서 가능한 다양한목소리, 해석을 제시하고 그럼에도 신앙인으로서 고민할 내용(복음, 십자가)을 제시한다. 결국, 신앙의 여정은 무언가를 쉽게 판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더 겸손히 천천히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은 아닐까. 저자는정치적 이야기를 다루고 안식, 죽음, 희생이라는 주제로 이동한다. 현대사회가 강조하는 속도, 효율이 아닌고전들이 제안하는 안식, 노동, 죽음은 기독교 신앙도충분히 받아들이고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저자는 지속적으로 신앙의 목소리와 고전에서 만나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동행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런 공동의 목소리를 지나서 저자는 믿음과 의심 그리고 용서를 다루면서 책을 끝낸다. 13장은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을 가지고 의심에 대한 기독교의 지나친경계를 지적하고 의심을 통한 신앙의 여정을 제안한

다. 의심이 의심으로 그치지 않고 도구와 수단이 되어서 더 깊은 믿음으로 간다면 신앙에서 의심은 그저 피할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용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해설한다. 용서가 얼마나 쉽지않고 '불가능'에 가까운 것인지를 자크 데리다를 통해서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나아가야 할 용서하는 신앙을 강조한다.

15권의 고전을 통해 저자는 기독교 신앙과 대화시킨다. 이 과정은 그저 공부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기독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성찰로 이어졌다. 저자는 끊임없이 기독교 신앙이 결코 반지성적이지 않으며 세상에답변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인다. 이 책은 신앙인들끼리만 통하는 신앙의 언어를 넘어서 세상에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아주 훌륭한 안내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독을 권하고 더 질문하고 이야기되길 기대한다. FRITH & LIFE





필리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로 졸업했다. 시흥 오병이어교회 초등부 전도사와 기독교출판유통 마케터로 일하고 있다. 책과 서점을 애정해서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의 고정 게스트로 참여하고 있고 북튜브 채널 〈제이픽〉을 운영하고 있다.

교회로 살면, 교회는 개척된다

김상인 (움직이는 교회 대표 목사)



'움직이는 교회'는 청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지역교회다. 나는 '움직이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 분당할렐루야교회 청년 사역자였고, 그때 청년들과 다양한 형태로 교회 밖에서 이미 예배를 개척했었다. 현재는 '움직이는 교회' 대표 목사로서 청년들과 함께 '일상교회 개척 운동'을 해나가고 있다. 동시에 청년들과 함께 다양한 교회 개척의 현장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청년 사역자로서 끊임없는 기도 제목과 고민의 주제는 한결같았다. "어떻게 청년들이 교회와 세상 가운데 일치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청년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움직이는 교회'는 2018년 6월 홍대에서 시작되었다.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 앞 앉은뱅이가 이 시대 청년들 같았다. 성전 앞에서 구결할 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교회 건물은 많으나 청년들이 들어오지 않는 현실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은 제자들 자체가 성전이 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했다. 오순절 이후 제자들은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는 앉은뱅이에게 직접 다가가서, 금과 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다. 이 말씀을 통해 '움직이는 교회' 개척의 소명을 받았다. 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복음이 필요한 앉은뱅이들을 찾아 나서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새로 세우면 어떠냐는 소명과 의식의 전환을 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열정만으로 나아가기에는 현실은 어려웠다. 도시는 복음에 관심이 없었다. 이때 '선한 사마리아인'(눅 10 장)에 대한 말씀을 다시 보게 하셨다. 강도당한 자를 만나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아야 하겠다는 결심과 새로운 관점을 다시 주셨다. 따라서 그때까지 준비했던 우리의 교회 개척 계획을 일단 내려놓고, 다시 도시와 청년들의 필요를 살피기 시작했다. 앉은뱅이와 강도 만난 자들에게 직접 다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갔다. 단순한 원리였지만 도시의 문을 여는 정확한 전략이 되었다. 그 영혼들의 필요가 비전이 되었을 때, 마침내 '움직이는 교회'는 세워졌다.

"교회로 살면, 교회는 개척된다!" 이것이 '움직이는 교회'의 핵심 가치다. 교회가 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면, 교회는 반드시 개척된다고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세워지리라 믿는다. '움직이는 교회'는 특별히 청년들을 통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청년들이 일상에서 교회로 살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들이 세워지길 바란다.

'코로나 19' 시기에도 '본질'(복음)을 확보한 청년들을 통해 유연하고 다양한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본질'과 유연함을 지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면, 새 형태의 교회들이 세워지리라 믿는다. 청년들이 대상에 머물지 않고 주체가 되어. 청년들이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FRITH & LIFE

'움직이는 교회' 목회자 소감문

남은 자



나의 선교적 삶은 '움직이는 교회'와 함께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전도했다. 하지만 곧 사람들이 불편해하면서 전도의 기회가 사라지는 현실과 마주했다. "상대가 듣든 말든 나는 진리를 말하겠다"라며 스스로 위안 삼았지만, 점차 내가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아닌가 하는 고민에 빠지며 낙담했다. 더 간절히 기도는 했지만 말 수가 부쩍 줄었다.

그 무렵 D 형제를 만났다. 홍대의 한 건축사무소의 소장님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D 형제는 그곳 직원이었다. 소장님을 자주 뵈러 가면서 D 형제와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나이는 동갑이지만 그곳의 직원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었다. 몇 달이 지나 우연한 기회에, 나와 D 형제 둘이서 대화를 깊이 나누게 되었다. D 형제는 고등학생 때 교회를 다녔지만 이후 10년은 신앙과 무관하게 살았다. 그렇지만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최근에 가끔 떠오른다고 말했다. 그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며 자기 작품들을 보여주더니 언젠가는 전시회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전시를 한다면 그때 작품 이송을 돕겠다고 제안했다.

D 형제는 '움직이는 교회'를 가끔 방문하기 시작했다. 한동안은 부담이 되었는지 설교가 시작할 때쯤 슬그머니 들어와서 설교가 끝날 때쯤 슬그머니 도망갔다. 몇 달 후에 전시회가 열렸고 나는 D 형제를 돕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전시회 때마다 자주 돕게 되었다. 둘이서 교제하는 기회가 많아졌고 조금씩 복음도 전해졌다.

1년 반이 지난 무렵 D 형제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성경공부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곧바로 온전한 회심은 없었지만, 말씀이 조금씩 심기는 것을 보았다. 다시 6개월이 지난 후 3주 동안 진행된 기도회에서 성령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임했고 D 형제는 마침내 회심하게 되었다. D 형제를 통해서 만난 여러 청년도 함께 줄줄이 회심하였다. 놀랍고 감사한 일이다. 다시 1년이 지난 현재, D 형제는 함께 동역하는 전도자로서 여러 예술가 청년들을 복음으로 품으며 섬기고 있다.

전도 방식의 변화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 방법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꼭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 시대 청년들 가운데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

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2030 세대가 아무리 참담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일꾼을 세우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움직이는교회' 도시선교사이다. UC 버클리 정치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청년 독서 나눔 콘서트

- 서울대, 성균관대, 카이스트 연합 연구 모임에 대하여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지난 2021년 7월 31일(토, 오후 1:00~5:00)에 서울대, 성균관대, 카이스트 그리스도인 대학원생 30여명이 참여한 독서 나눔 연합 연구 모임이 온라인(zoom)에서 있었다. 모임의 마중물이 된 책은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복음주의 진영의 미국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의 〈배제와 포용〉(IVP)이었다. 이 책을 수개월 전부터 3개 캠퍼스의 대학원생들이미리 읽고 난후 한 자리에서 다시 모여 발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아울러 각캠퍼스에서 1명씩별도의 자유 주제를 발제하고 토론하는 순서를 통해서도 좋은 내용과 열띤 참여열기로 풍성하고 알찬시간을 누렸다. 하나님은 '코로나 19'시국에서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2030 청년들에게 전혀 생각지 못한 당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주시는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

닫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

이 은혜가 주어진 계기를 간략히 소개하면 이렇다. 우선 이번 모임의 매개체가 된 책. (배제와 포용)은 2021년 1학기 카이스트 대학원의 기독교 세계관 연구 동아리 렉스(RACS)에서 선정해서 읽던 스터디 텍스트 였다. 그러다가 필자는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던, 이 렉 스 모임에 초대를 받아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와 내용의 시의 적절성과 신선함에 도전을 받았다. 그래서 더 많은 캠퍼스 청년들이 함께 읽고 나누면 좋은 텍스트라는 생각에 섬기고 있는 서 울대 캠퍼스의 여러 대학원생들에게 직접 추천해서 함 께 읽게 되었다 방식은 매주 일정 부분을 1명씩 돌아 가면서 요약 발제하고 함께 토론하는 것이었다. 이 책 이 다루는 주제들, 즉 배제, 포용, 정의, 진실, 성 담론 등은 마침 우리 시대 2030 세대가 관심이 많은 것들이 라서 내내 흥미로웠다. 그래서였을까 모임 중에 한 형 제는 무심코 자기 생각을 전했다. "목사님, 요즘 이 책 을 함께 읽고 있다는 카이스트 쪽 대학원생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한 번 가져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 생각을 카이스트 렉스에 전하자 기꺼이 동의하였 다. 하나님은 여기에 다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 사로 섬기시는 유재봉 교수(성균관대 교육학과)의 박 사과정(교육철학 전공) 학생 그룹이 우연한 기회에 이

정보를 공유하게 하시고,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오게 하셨다. 그리고 또다시 높은뜻씨앗스쿨의 기독교세계관 연구회 선생님들도 옵저버로 함께 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코로나 19'로 말미암은 비대면 위주의 시국에서 3개의 캠퍼스 그리스도인 대학원생들을 비롯한 많은 2030 영혼들이 같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른바 '〈배제와 포용〉 대학원생 독서 나눔 콘서트'라는 풍성한 선물을 허락하셨다.

또 다른 깜짝 선물도 있었다. 행사 당일 첫 시간, 기 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소속 많은 선배 및 교수님들 (신국원, 박동열, 박문식, 유재봉, 장수영, 웨슬리 웬트 어스, 장갑덕 등)이 직접 방문해서 모임을 축하하고 응 원해 주신 것이다. 이분들이 전하시는 내용 중에 현재 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1980년대 여러 캠퍼스 의 그리스도인 대학원생들이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 는 모임에서 시작되었다는 회상은 참여자들에게 신선 한 도전과 자극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동역회 신국원 이사장님의 축복기도로 시작한 이번 '독서 나눔 콘서 트'의 전체 내용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되 었다. 1부는 볼프의 〈배제와 포용〉을 캠퍼스 별로 1명 씩 대표 발제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다. 발제는 양동 일(성균관대 교육철학 박사과정)의 '서론', '1장 거리 두기와 소속되기', '2장 배제', 백유미(KAIST 바이오 및 뇌공학 석사과정)의 '3장 포용', 4장 '성 정체성'을, 조 예상(서울대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의 '5장 억압과 정 의', '6장 기만과 진실', '7장 폭력과 평화' 순으로 진행 되었다. 2부는 자유 발제와 토론 시간이었는데, 양정 아(성균관대 교육철학 박사, 한양대 특임교수)의 '배재 없는 포용을 위한 미션스쿨의 역할', 탁장한(서울대 사 회복지학 박사과정)의 '(누가 빈곤의 도시를 만드는 가〉에 대하여' 정이레(KAIST 생명과학 박사)의 '행동 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발제와 더불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시종일관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짧게 느껴진 시간이었다. 행사는 카이스트 렉스를 섬기시는 장갑덕 목사님의 축복기도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독서 나눔 콘서트' 후세 캠퍼스의 대학원생다 수 참가자들은 이러한 방식의 캠퍼스 연합 연구 모임 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의 수렴도 있었다. 따 라서 현재 세 캠퍼스에서는 관련 독서 모임이 지속되 고 있다. 이 불씨가 계속 멋지게 타오르게 되기를 기도 한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비대면 상황의 일상화는 확 실히 여러 부분에서 캠퍼스 2030 그리스도인의 활동 을 제약한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모든 시대와 상황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선물을 예비하 고 계신 분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은 1980년대 초 여러 캠퍼스의 그리스도인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영성과 지 성의 일원화라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비전을 품고. 이 나라와 사회에 온전한 변혁의 꿈을 실현하는 첫 발 걸음을 내딛게 하셨다. 그 청년의 다수는 현재 동역회 의 시니어 회원이자 한국 기독교 각 곳에서 선한 영향 력을 미치는 오피니언 리더가 되어 있다. 필자는 수년 전부터 이분들로부터 자신들의 비전을 이어갈 후세대 2030 그리스도인의 세움을 위한 간절한 중보기도를 하 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왔다. 필자 역시 이 거룩하고 마 땅한 역사의 반복을 위한 중보기도와 응원에 함께 미 약한 힘을 보태고자 한다. FRITH & LIFE

글쓴이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이자 침신대 겸임교수이다. 지난 27년 동안 여러 지역교회와 캠퍼스에서 청년학생들을 줄곧 섬겨왔다. 침신대에서 공부했고 (조직신학, Ph.D), 서울대학교회 목사(2012-2016)를 역임했다.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신앙과삶〉 편집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과학, 기독교 세계관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와 기독교학교의 만남

김병재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교육연구원)



기독교 세계관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사실 그동안 총론에 대한 논의는 많았다. 하지만 기독교학교현장 교사들의 실존적 고민은 언제나 자신의 교과였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이하 동역회)와 몇몇 기독교학교의 적극적 움직임이 있었다. 동역회는 지난 2021년 2월 9일 별무리학교(교장: 이상찬), 꿈의학교(교장: 이인희), 높은뜻씨앗스쿨(교장: 이정연) 등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교과 관련 협력 연구를 위한 본격적 발걸음을 시작했다.

2021년 초여름, 동역회는 우선 기독교 세계관적 교과 교육을 돕기 위한 연구 목적으로, 박동열 교수(서울대)를 위원장으로 준비위원회(task force, TF)를 구성하였다. 1 그리고 대안학교 아 함께 몇 번의 회의를 거

1. 동역회 내 TF 팀원: 박동열(서울대 교수, 언어학), 박영주(웨스

처 전체적 틀을 잡았다. 그리고 기독교학교와 동역회 내 전문가(전공 교수)들과의 현장 교사들의 대화와 질 의응답을 통해 교과의 세계관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이를 통해 나오는 결과물들은 온라인(유튜브 & 홈 페이지)을 통해 많은 기독교학교가 공유하기로 했다.

구체적 첫 발걸음은 "과학 교과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기독교학교 현장 교사들의 물음에 답을 구하는 것이었다. 6개 기독교학교(소명, 밀알두레, 은혜의동산, 꿈의학교, 별무리, 높은뜻)의 과학교사들은 평소 학교 현장에서 고민했던 생각들을 질문형식으로 모으고, 그것을 다시 4개의 영역(기원,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과학사)으로 분류하여, 동역회에답신을 구하는 도움을 요청하였다. 동역회 준비위원회는 동역회 내 관련 전공 교수님들을 섭외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분들이 함께 섬기게 되었다. 물리 영역(염동한 부산대 사범대 교수, 이경호 서울대 사범대 교수), 화학 영역(김성현 건국대 교수), 생명 영역(현창기 한동대 교수), 지구과학(양승훈 VIEW 교수), 과학철학 및

턴신학교 교수, 기독교교육학), 김보경(전주대 교수, 교육학), 석종 준(침신대 겸임교수, 조직신학), 장슬기(높은뜻씨앗스쿨 교감, 지 구과학), 김병재(은혜의동산기독학교 교육연구원, 생명과학)를 구 성하였다. 과학사(류현모서울대 분자유전학 교수).

참여한 전공 교수들은 그 가치와 의미를 잘 알고 있 기에 적극적이었다. 기독교학교 현장 과학 교사들이 보내준 약 100여 개가 넘는 질문들에 대한 적절한 답 신 마련을 위한 세 차례의 온라인(Zoom) 연구 모임을 개최하였다. 1차 연구 모임(8월 12일, p.m. 8~10)에서 는 기독교 세계관적 과학 교육의 의미와 해당 질문들 에 대한 각 영역의 전공 교수들이 답신 초안을 누가 준 비할 것인지를 정했다. 2차 연구 모임(8월 19일, p.m. 8~10)에서는 답신 초안을 준비한 과학사 및 과학철학 영역의 류현모 교수(서울대 분자유전자학)와 화학 영 역의 김성현 교수(건국대 화학과)의 발표 후 내용을 함 께 검토하는 시간이었다. 3차 연구 모임(8월 26일, p.m. 8~10)에서는 답신 초안을 준비한 생명 영역의 현창기 교수(한동대 생명과학부), 우주기원론 영역의 염동한 (부산대 물리교육과), 물리 영역의 이경호 교수(서울 대 물리교육과)의 발표 후 내용을 함께 검토하는 시간 을 가졌다.

그 값진 연구의 현장을 이 짧은 지면에 모두 소개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물리 영역에서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전환이 기 독교 세계관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이 질문만 보더라도 현장의 교사들이 느끼는 세계관적 교과 해석은 그동안의 세계관적 연구들보다 매우 구체 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이경호 교수의 답변을 일부 나누어 본다.

"…중략…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전환(그 합이 보존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의 관념세계의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즉, 위치에너지 등의 개념이 그 자체로 물질세계의 구성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관념세계의 구조는 물질세계의 구조를 100% 반영할 수 없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관념세계와 물질세계의 연결은 꽤 긴밀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덧붙이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변하지 않는 그 무엇'에 대한 갈망을 주셨고, 그것을 물리학자들은 '보존법칙(conservation law)'이라는 형태로 표현했다고 봅니다."

사실 그동안 과학 교과는 '기원 과학'에 매몰되어 교 과 내의 풍성하고 다양한 세계관적 가치들에 눈을 돌리 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용한 답변뿐 아니라 각 영 역의 다양한 질문과 답변들은 각론과 총론을 자유롭게 오가며 교과 자체의 성격과 인간론까지 아우르는 알찬 내용이었다.

그러나 동역회와 기독교학교의 협업은 이제 막 한 걸음을 다뎠을 뿐이다. 이 시작이 기독교학교 교사들의 교과 연구에 작은 보탬이 되길, 그리고 건강한 세계 관적 현장 교육의 실현을 꿈꾸는 교사들의 귀한 플랫폼이 되길 바라고 있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수고를 통하여 과학뿐 아니라 장차 수많은 교과 영역들에서 느끼게 될 하나님의 풍성함과 다양함은 분명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귀한 유산이 될 것이다. 함께 섬기시는 한 교수의 한 마디가 매우 인상적이다.

"흥분과 기대가 됩니다.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FRITH & LIFE

글쓴이 김병재



시골에서 아내와 함께 가율, 선율, 노율 세 자녀를 키우며 살고 있다. ACTS 에서 기독교교육학 박사과정(Ph.D) 중이다. 화성의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의 교육연구원, 높은뜻씨앗스쿨과 새음학교 과학 교사, 동역회 교과연구 TF 팀으로 있다. 신학과 철학, 교육의 관계에 대해 관심이 많다. 저서로는 〈교사들이 말하는 기독교대안교육〉(ACTS교육연구소, 공저)이 있다.

<신앙과 삶> 독자 한마디

<신앙과 삶> 7+8월호) | 특집: '기독교대안학교'에 대하여

- 신학대학 관계자로서 기독교대안학교 기사를 읽을수록 가슴이 벅찼습니다. 많은 대학은 직업 양성소가 되었습니다. 신학대학 도 통한의 가슴을 치지 않으려면 본질 회복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기민석 (침신대 구약학 교수)
- 기독교 대안 교육의 최전선에 계신 분들의 치열한 고민과 다양한 실험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지성 운동을 위해 힘써온 동역회가 기독교대안학교 교육을 위해 동역한다니 기대가 많이 됩니다. – 김반석 (동경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 가까이서 익숙하게 들었던,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 약간 먼, '기독교/대안/학교'의 흐름과 그간의 노력을 좀 더 풍성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위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하는 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김영윤 (분당우리교회 교구 담당 부목사)
- '기독교대안학교'에 대한 귀한 소식들을 잘 읽었습니다. 뜻있는 교회와 기관과 단체들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기독교대안학교에 재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조직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철수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 박현수 선생님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수 교회가 대안학교를 시작하지만, 교사들에게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현실 속에서 교사의 자질을 어떻게 높이며,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개별학교 특성을 살리는 연합체(연구소)의 구성은 왜 필요한지 제시하셨습니다. 나영진 (만남의교회 담임목사)
- 여러 대안학교 리더들이 '기독교/대안/학교'의 의미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글 사이에서 각 현장의 거룩한 고군분투도 짐작하면서 기독교대안학교들의 연합활동과 연합체의 활약을 더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실 (한독대 교육대학원 교수)
- 기독교대안학교 특집은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기 위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군분투하는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며 감명받았습니다. 거룩한 세대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 이지영 (높은뜻씨앗스쿨 사회교사)
- 이 땅의 많은 교육기관이 능력주의와 명문대 진학을 실질적 존재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고, 그 실현을 위해 애쓰는 학교들을 통해서 세상의 문법과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현장을 소개받아 좋았습니다. 오민용 (서울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작금의 여러 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글들을 접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특히 교회가 '코로나 19' 이후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깨닫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글들을 집필하신 분들과 편집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양지수 (㈜ 삼구 상무이사, 분당우리교회 집사)
- "대안학교는 사변적 논의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기독교 세계관에 의한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말만 있고 행동은 없는 기성세대 그리스도인 교사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희영 (총신대유아교육과 교수)
- 기독교대안학교가 직면한 법제화 문제부터, 다양한 대안학교의 특징, 학문의 영역에서 바라본 모습까지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청년, 삶을 고민하다>에서 공현석 선생님의 글은 그리스도인 교사의 삶과 비전을 진솔하게 표현하여 기억에 남습니다. 최은미 (밀알두레학교 소명교사)

FATH&LIFE NEWS



〈제38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 개최 안내

주제: 메타버스 시대의 의사소통과 기독교

일시/장소: 2021.10.30.(토) 13:00~18:00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온 · 오프라인)

주제강연: 권오병(경희대 경영학과), 김용찬(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문상철(카리스교차문화학연구원장)

논문 발표 및 참가 신청: bit.ly/2021kacs38 / 논문 제출: gihakyun@daum.net **논문신청 마감:** 9.15(수), **논문요약/초록 마감:** 9.29(수), **논문제출 마감:** 10/11(월)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온라인 세미나 개최)

- 세미나1: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하민)

일시: 2021.07.25. (저녁 7-9시) * 참석: 대의원 15명

- 세미나2: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일시: 2021.09.03. (저녁 7-9시) * 참석: 대의원 19명

〈동역회 임원 동정〉

양승훈 이사(VIEW 교수): 그동안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의 설립자(1999)로 헌신해 왔던 사역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아프리카 에스와티니 기독의과대학교(EMCU) 총장에 부임하였다.

〈동역회 임원 신간 안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학교 이야기)(썬더버드, 2021)

저자: 박영주 이사(미드웨스턴 신학대학 교수, 기독교교육)

소개: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마다 겪고 있는 환경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배움의 터를 마련해 준세계의 학교들 이야기가 담겨 있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및 임원

사단번인 이사회

명예 이사장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이사장 신국원(총신대 명예교수)

이 사 박영주(미드웨스턴 신학대 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양승훈(VIEW 교수), 양성만(우석대 교수), 조성표(경북대 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정희영(총신대 교수), 홍명식(사 까나야 대표), 최태연(백석대 교수),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최현일(샘병원 의사), 문준호(코아시아옵틱스 연구 위원)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박동열(서울대 교수)

실행위원 강진구(고신대 교수), 권오병(경희대 교수),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김미영(한국소토 대표), 김예원(VIEW 간사), 김지원(백석대 교수), 김혜정(CUP 대표), 김재완(서울대 인류학과 조교), 문준호(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박문식(한남대 교수), 박진규(서울여대 교수), 이상민(번역가), 유경상(CTC 대표), 윤헌준(숭실대 교수), 이재희(가천대 교수), 장슬기(높은뜻씨앗스쿨 교감) 최용준(한동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박문식(한남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학술부학회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기획부학회장** 김철수(조선대 교수)

총 무 오민용(서울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감 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이명헌(인천대 교수)

〈신앙과 학문〉편집위원장 권오병(경희대 교수, 경영학) 〈신앙과 학문〉편집 위원 검경민(전남대 교수, 전기공학),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로스쿨),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조직 신학), 김철수(조선대 교수, 영문학), 박원곤(한동대 교수, 국 제어문학), 신ㅈ응철(동아대 교수, 서양철학),염동한(부산대 교수, 물리교육학),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교육철학), 이은실(한동대 교수, 교육학), Paul Lim(미국, Vanderbilt University 교수, 신학), 임춘택(제주대 교수, 독문학), 조은주(고신대 교 수, 간호학), 허계형(총신대 교수, 유아교육학), 현창기(한동 대 교수, 생명과학) 황혜원(청주대 교수, 사회복지학)

FATH&LIFE **NEWS**

관련기관 소식



▶ **VIEW**(전성민 대표)

VIEW(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Academic Programs 안내

- Master of Arts 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문학석사 졸업 이수 학점: 53학점(2.5~3년)
- M.Div in Worldview and Peace Studies (Korean) 세계관 및 평화학 목회학석사 이수 학점 및 예상 수강기간: 89학점 / 3.5~4년
- Graduate Diploma-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디플로마 졸업 이수 학점: 35학점(1.5~2년)
- **온라인과정**: 밴쿠버 전일제 학생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위의 두 과정을 수강 및 졸업할 수 있다. ** 입학 안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 홈페이지(view.edu)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TC(유경상 대표)

CTC(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는 여름방학 사역으로 온라인 청소년세계관캠프와 '기독교세계관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 읽기'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2021년 2학기 CTC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기독교세계관과 코칭' 수업(9월 2일 개강)
- 부모교사세계관학교: 〈원리편〉(9월 28일 개강)
- **아빠들과 함께 하는 부모학교:** 10월 7일 개강
- 어린이세계관캠프: 10월 16일 개강
- 부모교사세계관학교: 〈실제편〉(11월 23일 개강)
- 월드뷰패밀리아카데미: 〈그리스 로마 신화〉(11월 17일 개강)
- * CTC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참여 신청은 CTC 사무국(010-3673-8439)으로 연락 바란다.
- *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 세우기'를 목표로 하는 CTC 사역(www.ctcworldview.com)에 동역회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

▶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CUP는 성경적 삶과 문화를 창조하며, 더불어 꿈꾸고 소통하며 성경적 비전을 확장시키는 나눔터이다. www.cupbooks.com *문의: cupmanse@qmail.com | 02-745-7231

– 신간 소개



(햇살 좋은 날 하루를 널어 말리고 싶다) 김경집, 김건주 지음 | 328쪽 | 17.000원

인문학자 김경집 + 지식유목민 김건주

어느 하루도 시시한 날은 없다 내가 되는 나의 시간, 익숙한 오늘에서 낯선 행복을 만나다

마음엔 숨표를, 삶엔 쉼표를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 어느새 매일 마주하는 일상을 표현하는 말이 되었다. 이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일상에 관한 질문이다. 매일 만나는 삶에 관한 성찰이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문 학자인 김경집 교수와 하이브리드 지식인이자 지식유목민인 김건주 목사는 날마다 반복되는 듯한 우리 일상에 소소한 질문과 통찰을 제공한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21년 7월, 8월결산)

수입 항목	세부 항목	2021년 7월	2021년 8월	지출 항목	세부 항목	2021년 7월	2021년 8월
	이사회비	540,000	470,000	인건비	일반급여	4,920,000	4,920,000
	임원회비	860,000	530,000		기타급여	400,000	400,000
	일반회비	4,631,000	4,628,500		소계	5,320,000	5,320,000
	기관후원금	3,225,252	2,800,000		사무실임대료	850,000	850,000
	월드뷰후원금	0	0		사무실관리비	387,146	411,966
	사무실후원금	0	0		통신비	158,070	155,230
	CTC후원금	60,000	60,000		우편료	14,410	4,500
	VIEW후원금	1,100,000	1,300,000		소모품비	3,600	4,900
	기타후원금		0		비품	0	0
	월보구독료	496,000	391,000	경상비	식비	264,400	269,000
경상수입	학술지원금	0	0		수선비	0	0
	세계관사역지원금	0	0		복리후생비	598,320	659,340
	기타	0	980,000		퇴직연금	394,510	394,510
			,		컴퓨터	1,299,000	0
					교육비	0	0
					회의비	0	0
					회계용역비	0	55,000
					여비교통비	0	0
					서무비	77,000	203,000
					기타(지급수수료)	143,845	173,559
	소계	10,912,252	11,159,500		소계	4,190,301	3,181,005
	일반이자	0	0	연구지원비 출판(회지	CTC후원금	59,725	59,725
	법인이자	0	0		VIEW후원금	1,181,365	1,051,420
	법인세환급금	0	0		소계	1,241,090	1,111,145
	기타수입	0	0		인쇄비	1,243,919	1,196,800
기타수입	기금차입	0	0		발송비	598,510	0
	결산이자	0	0		소계	1,842,429	1,196,800
	예수금	351,740	321,010		세금	0	119,750
	"	302,110		기타	잡비	300	300
	소계	351,740	321,010		소계	300	120,050
	학회이사회비	170,000	170,000		학회강사료	200,000	0
	학회행사수입	0	0		학회장소사용료	0	0
	자료집판매	0	0	학회	학회자료제작비	0	0
	학회지판매	0	0		학회홍보및기타	160,000	0
	학술지심사비	0	70,000		학술지인쇄비	2,650,482	0
학회	학술지게재료				학술지발송비		
	저작권료	108,400	250,000		학술지심사료	769,060 840,000	0
	학회기타수입	0	0				0
	의외기디구급 0 0			학회조교비	24 600	0	
	소계	270 400	400.000		학회기타 소계	24,600	0
	-	278,400	490,000 1,031,745			4,644,142	1 024 410
저워 민소그	전월 CMS입금	943,185		차월이월 수입금	이달 CMS 미수금	1,031,745	1,024,410
전월 미수금	전월 이니시스 입금	0	60,000		이달 이니시스 미수금	60,000	80,000
-	소계	943,185 12,485,577	1,091,745	-	소계	1,091,745	1,104,410
	당월 수입액		13,062,255	당월 지출액		18,330,007	12,033,410
7	전월 이월액		30,347,320	차월 이월액 (잔액)		30,347,320	31,376,165

^{*} CMS등 입금여부를 명시하여 당월 현금시제와 재정보고서 금액이 일치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원후원

(2021년 7월)

3천 김성권, 3천5백 곽도명, 김봉현, 김샛별, 김성욱, 김영주, 김정원, 김형근, 김희원, 박원근, 생명의강, 손영일, 윤정, 장재수, 장현정, 전은경, 조성진,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병 진, 최연무, 최원길, 하태실, 5천 강대용, 공승건,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현, 김대용, 김상욱, 김승택, 김정명, 김정심, 김태영, 김혜창, 노승욱, 박광제, 박해조, 범경철, 손영경, 송시섭, 신종철, 오경숙, 유충열, 윤종선, 이경미, 이길수, 이덕재, 이민화, 이수인, 이인수, 이종혁, 이지영, 이향숙, 임소연, 임형준, 장헌일, 전보규, 정진우,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5백 강찬진, 박상균, 방선기, 백예은, 손화정, 이윤택,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David Han, 강연정, 강연희,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 세일, 고웅재, 권경호, 기민석, 길원평, 김경호, 김광태, 김규욱, 김근배, 김기현, 김남진, 김농오, 김도형, 김동연, 김막미, 김미림, 김민경, 김민성,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봉수, 김 봉애, 김상범, 김상옥, 김샛별, 김성규, 김성인, 김성진, 김성찬, 김성호, 김세령,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영규, 김영숙, 김영윤, 김영호, 김용국, 김용석, 김 유니스,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완, 김재정, 김정모, 김정준, 김정철, 김정호, 김종원, 김종일, 김종철, 김죄남, 김주영, 김지곤,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 혜정, 김홍섭, 김효숙, 나영진, 남선우, 노순석, 라영환, 류지호, 류진호, 류현모, 류화원, 모상근, 모아론, 문제환, 박능안, 박동현,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안나, 박원곤, 박은주, 박 준모, 박지현,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성진,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백은석, 백종국,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호행, 섀넌리차드, 서유미,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하은, 손현탁, 송아영, 송은희, 송종철, 송철호, 송태상, 신상형, 신성만, 신찬웅,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안병열, 안석, 안선자, 안성희, 안숭범, 양성건, 양 성철, 양행모, 양혜영, 양혜원, 양희석, 연혜민, 염동한, 오민용, 오성호, 유건호, 유기남, 유동준,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은희, 유재은, 유해무, 윤상헌, 윤숙자, 윤영배, 윤 재림, 윤태형, 윤헌준, 윤혜림, 이강, 이경연, 이경직, 이기명, 이길형, 이노윤, 이덕영,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헌, 이문원, 이병수, 이봉근, 이상수, 이상순, 이상진, 이상환, 이상 희, 이선경, 이선복, 이성근, 이성미, 이성수, 이세정, 이수연, 이수형, 이순진, 이승엽, 이시영, 이아름, 이언구, 이연의, 이영미, 이요한, 이용훈, 이원도,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 정, 이윤희, 이정기, 이정옥, 이정일, 이종철, 이주은, 이중섭, 이지연, 이진희, 이창훈, 이해리, 이행로, 이혜옥, 이희진,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일택, 임지연, 임춘택, 장경 근, 장슬기, 장승제, 장승화, 장은해(양종태),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성구, 전항록, 정다운, 정대운,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영수, 정용수, 정은희, 정이레, 정재섭, 정현구, 정현 주, 정회원, 제양규, 조경덕, 조미연, 조성국,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창희, 조현용, 조현지, 조혜경,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성두, 최성호, 최영, 최용성, 최은정, 최종빈, 최한빈, 최혜경, 추진연, 하성만, 하재희, 하헌진, 한미영, 한신영, 한혜실, 한화진, 한희수, 허선아, 허연, 허현, 흥구화, 홍대화, 홍요셉, 홍정석, 홍종인, 홍판석, 황기철, 황도웅,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에스더, 황의찬, 황인경, 황혜숙, 황혜원, 1만5천 김선화, 김준원, 박정호, 이경우, 정상섭, 2만 강미리, 강용란, 구 영주, 김보경, 김용식, 김정욱, 김정일, 김정호, 김태진, 박계호, 박기모, 박흥식, 손진영, 손창민, 송찬호, 엄준용,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건, 이기서, 이연우, 이종훈, 장인석, 장인 숙, 전윤조, 정정숙, 정훈, 채기헌, 허정도, 황혜정, **3만** 김경민, 김동원, 김두환, 김방용, 김예원, 나용균,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송인규, 송태현, 신혜경, 오 의석, 이은실, 이창우, 정민, 최동진, 최용준, 추태화, 황영철, 황정진, 4만 강다엘, 문석윤, 우병훈, 5만 김종우, 김태훈, 김택호, 박정심, 양승훈, 윤석찬, 윤완철, 이대경, 이상민, 이원 삼, 이형직, 전희경, 정문선, 정은애, 조득정, 한윤식, 6만 강연승, 엄창옥, 이관표, 7만 박문식, 9만 김홍빈, 10만 김태황, 박영주, 손봉호, 신국원, 장수영, 장점연, 최현일, 12만 김민 철, 김성현, 장민호, 14만 최태연, 36만 김미영,

계 7,647,0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 다운공동체교회, 새언약교회, 서로사랑교회, 10만 강남교회, 개봉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세움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서울영 동교회, 성덕교회, 예수향남교회, 예심교회, 종교교회, 종암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흰돌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삼일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47만5천252 원 Calvary Korean Church

전체 10,922,252원

회원후원

(2021년 8월)

3천 김성권, 3천5백 곽도명, 김봉현, 김샛별, 김성욱, 김영주, 김정원, 김형근, 김희원, 박원근, 생명의강, 손영일, 윤정, 장재수, 장현정, 전은경, 조성진,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병 진, 최연무, 최원길, 하태실, 5천 강대용, 공승건,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현, 김대용, 김상욱, 김성찬, 김승택, 김정명, 김정심, 김태영, 김혜창, 노승욱, 박광제, 박해조, 범경철, 손영경, 송시섭, 신종철, 오경숙, 유충열, 윤종선, 이경미, 이길수, 이덕재, 이민화, 이수인, 이인수, 이종혁, 이지영, 이향숙, 임소연, 임형준, 장현일, 전보규, 정진우,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5백 강찬진, 박상균, 방선기, 백예은, 손화정, 이경우, 이윤택,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David Han, 강연정, 강연희, 강은정, 강혜 영, 고길현, 고세일, 고웅재, 권경호, 기민석, 길원평, 김경진, 김경호, 김광태, 김규욱, 김근배, 김기현, 김남진, 김농오, 김도형, 김동연, 김막미, 김미림, 김민경, 김민성, 김병국, 김병 재,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목, 김샛별, 김성규, 김성인, 김성진, 김성호, 김세령,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영규, 김영수, 김영윤, 김영호, 김영 국, 김용석, 김용찬, 김유니스,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완, 김재정, 김정모, 김정일, 김정준, 김정철, 김정호, 김종원, 김종일, 김종철, 김좌남, 김주영, 김지곤, 김진성, 김철수, 김 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혜정, 김홍빈, 김홍섭, 나영진, 남선우, 노순석, 라영환, 류지호, 류진호, 류헌모, 류화원, 모상근, 모아론, 문제환, 박계호, 박능안, 박동현, 박상희, 박승 호, 박시운, 박안나, 박원곤, 박은주, 박준모, 박지현,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성진,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백은석, 백종국, 부천평안교회, 사호행, 새넌리차드, 서 유미, 서화진, 성영은, 소진희, 손진영, 손창민, 손하은, 손현탁, 송아영, 송은희, 송종철, 송철호, 신상형, 신성만, 신찬웅,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안병열, 안석, 안선자, 안성 희, 안숭범, 양성건, 양성철, 양행모, 양혜영, 양혜원, 양희석, 엄창옥, 연혜민, 염동한, 오민용, 오성호, 유건호, 유기남, 유동준,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은희, 유재은, 유해 무, 윤상헌, 윤숙자, 윤영배, 윤재림, 윤태형, 윤헌준, 윤혜림, 이강, 이경연, 이경직, 이기명, 이길형, 이노윤,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헌, 이문원, 이병수, 이봉근, 이상 수, 이상순, 이상진, 이상환,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성근, 이성미, 이성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엽, 이시영, 이아름, 이언구, 이연의, 이영미, 이요한, 이용훈, 이원도, 이원 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희, 이은미, 이정기, 이정나, 이정옥, 이정일, 이종철, 이주은, 이중섭, 이지연, 이진희, 이찬수, 이창우, 이창훈, 이해리, 이행로, 이혜옥, 이희진, 이희 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일택,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슬기, 장승재, 장승화, 장은해(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성구, 전항록, 정다운, 정대웅, 정동관, 정봉 현, 정선경, 정영수, 정용수, 정은희, 정이레, 정재섭, 정정숙, 정현구, 정현주, 정회원, 제양규, 조경덕, 조미연, 조성국,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창희, 조현 용, 조현지, 조혜경,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성두, 최성호, 최영, 최용성, 최은정, 최종빈, 최한빈, 최혜경, 추진연, 하성만, 하재희, 하헌진, 한미영, 한 신영, 한혜실, 한화진, 한희수, 허선아, 허연, 허현, 홍구화, 홍대화, 홍요셉, 홍정석, 홍종인, 홍판석, 황기철, 황도웅,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에스더, 황의찬, 황인경, 황혜숙, 황혜 원, 1만5천 김선화, 김준원, 박성태, 박정호, 정상섭, 2만 강용란, 고선옥, 김남중, 김보경, 김용식, 김정욱, 김정호, 김태진, 박기모, 박흥식, 송찬호,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건, 이 기서, 이연우, 이원제, 장인석, 정훈, 채기헌, 허정도, 황혜정, 3만 강다엘, 강진구, 김경민, 김동원, 김두환, 김방용, 김예원,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배덕만, 서성록, 성기진, 손화철, 송인규, 송태현, 신혜경, 양승규, 오의석, 이근호, 이은실, 정민, 최동진, 최용준, 추태화, 황영철, 황정진, 황준용, 4만 마민호, 문석윤, 우병훈, 5만 김종우, 김태훈, 김택호, 박정심, 양 승훈, 윤석찬, 윤완철, 이대경, 이상민, 이원삼, 이형직, 전희경, 정은애, 조득정, 한윤식, 6만 김연종, 서혜정, 송희영, 정향범, 지상선, 7만 박문식, 최태연, 10만 김미영, 박영주, 손봉 호, 손정엽, 신국원, 장수영, 장점연, 최현일, 12만 김계연, 김민철, 김인수, 석종준,

계 7.469.5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 다운공동체교회, 새언약교회, 서로사랑교회 일원교회 10만 강남교회, 개봉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세움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예수향남교회, 예심교회, 종교교회, 종암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흰돌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삼일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계 2,850,000원

전체 10,319,500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위원 소개

발행인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명예 이사장
편집장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이사장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유준	서울 은진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겸임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문준호	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실행위원장
	박영주	미드웨스턴 신학대학 교수,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날 대학교, Ph.D, 이사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흥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엔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조직신학, 침신대 Ph.D, 기획위원장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이사
편집위원	윤헌준	숭실대 교수, 기계공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이병주	기독법률가회(CLF) 대표, 변호사, 하바드대 로스쿨 석사
	이상민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이사
	최현일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감사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장,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셔리대 Ph. D. 정회원
편집실무자	석종준	사무국





박흥식



김대인



석종준





양성만







박영주



박진규



전명희



조성표



최태연





이병주



이상민



장수영





최현일



추태화



황영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회원 신청하기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휴대폰으로 <mark>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mark> 이메일 : info@worldview.or.kr / 후원신청은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www.worldview.or.kr



신	l청	지	- 7	정보
---	----	---	-----	----

성명			생년원	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후원금액 및 병	방법 선택						
후원금액	ㅁ 1만원	ㅁ 2만원	ㅁ 3만원	ㅁ 5만원	ㅁ기타(원)	
후원방법	ㅁ 매월 CMS	자동이체	ㅁ 매월 직	접 입금	ㅁ 연후원금(12개	월 분) 일시 납부	
CMS 신청자(<u>만</u> 기록해주세.	요. *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	우, 필히 예 금주 의	기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	l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0 :	체일 ㅁ 2년	5일 ㅁ 30일		
예금주와의 관	Ŀ 계		예	금주 휴대전호	ŀ		
은행명		계	좌번호				
예금주 생년월	일일 / 사업자(그	고유)번호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동의를 잘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 청구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함 □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로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 씨엠에스코리아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효성에프엠에스 □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ÓI) ¤	20 년 는서명 / 결	월 일 제정보제공지	ł:	(인) 또는 서명	
	-	\ /	^10 / 24			16/46/	

※ 신청인과 결제정보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결제정보 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또는 가입자)

이 정도면 충분한

인생의 오후 에세이

남은

반원을 그린다



조희선 지음 | 192쪽 | 12,000원

젊은 날 동안 최선의 반원을 그린다면 젊은 날이 끝나면 최선을 다해 나머지 반원을 그려야 한다. 이제까지와는 달리 반대 방향으로 그려야 한다.

나의 7년은 미리 그려 놓은 길을 바라보느라 멈춰 선 시간이었다. 고통스러운 시간, 멈춰 서서 새로운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게 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다. 나는 아둔하여 7년이라는 시간의 아픔이 있었어야 남은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그리기 시작한 남은 반원은 그야말로 작고 소소하고 소박하다.

메타버스 시대의 의사소통과기독교

2021.10.30

(E) 13:00~18:00

대학원생 10:00~12:00

^{장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온·오프라인)



주제강연(대면진행)

1. 메타버스의 현황과 전망

2.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메타버스' 소동

김용찬 교수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3. Z세대의 세계관 이해와 메타버스 시대 교회의 선교

문상철 원장 카리스교차문화학연구원

패널토의 사회

김철수 교수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분과발표 (비대면 중심, 일부 대면진행)

대학원생, 공학, 경제·경영, 교육학1.2, 사회과학1.2, 신학1.2, 의·약·간호학, 인문학1.2, 자연과학, 학제간연구

발표논문신청안내

- ▶ 2021.09.24(금) 논문신청 마감
- ▶ 2021.09.29(수) 초록 마감
- ▶ 2021.10.11(월) 논문제출 마감

신청·참가 bit.ly/2021kacs38

논문제출 gihakyun@daum.net

홈페이지 worldview.or.kr

